朝鮮日報
夕刊
十九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政民聯携에依하야
立憲政治 復活氣運昂揚
政府는再解散으로서威脅!
選擧結果 政局大波瀾豫想

【東京電話同盟】政戰은 十九日로서 마친내 第四週期에 入하엿는데 全線에 亘하야 言論文書의 白熱戰이 展開되며 最後의 決戰을 開幕하게되엿다 選擧公報도 埼玉 山形 岐阜三縣을 最後로 十九日에는 全部 맛막고 또 立候補辭退도 同日로 完了치 안호면 供託金二千圓은 沒收될 것으로 二十三日法定立候補申出마감期日을 기다리지안코 十九日로서 事實上거의 立候補者는 屆出될터이요 同時에 候補辭退도 끗막게되리라고 思惟된다 따라 各派가 모다 바야흐로 戰線을 整理키爲하야 非公認候補整理에 奔忙하여 잇는데 十九日最終日에는 結局五十名內外의 辭退者를 내여 戰線을 整理하게 되리라고 思惟된다 이리하야 마친내 各派가 모다 今後에 남은 十二日間 最後의 白兵戰에 入하야 끝으로 突進하게될터인데 이미 政民兩黨은 非立憲解散反對旗幟를 鮮明하고 反政府色彩를 明白히 하야 各其獨自의 會見을 揭하고 官僚政府냐 立憲政府냐를 國民總意에 問하려하며 社大黨도 亦是現狀打破로서 勤勞大衆을 背景으로 政府及旣成政黨에 鋒鋩을 向하고 東方、國同、養正會、政治革新協議會等小會派도 各自의 立場에서 國民에 呼訴하야 力鬪하고잇다 이에 對하야 政府도 亦是解散의 眞義를 再强調하고 再解散으로서 威脅하면서 時局認識의 不足을 標榜하고 議會政治의 刷新을 一擧에 達成하려한다 그러나 엇쟷든 確乎한 輿黨이 업는 總選擧이오 政民聯携에 依한 立憲政治復活氣運이 漸次昂揚되는 現狀에 鑑하야 總選擧後의 政局은 政民聯携로 政府에 當하고 政府가 退陣치안흘境遇에는 特別議會開會頭에 不信任案을 提出할意氣를 示하고잇서 總選擧後의 政局은 波瀾萬丈을 豫想케하는바 選擧戰의 結末如何에 對한 國民의 關心은 漸次高潮에 達하여잇다

政黨도無自覺이나 政府態度도非立憲的
新黨運動은期待할것이못된다
貴院研究各派의意向

【東京電話同盟】總選擧後의 政局과 新黨問題에 關하야 貴族院研究會를 비롯하야 各派意向을 綜合하면 左와如하다
今回의 議會解散은 一面 旣成政黨의 無自覺한 所爲라는 것은 否定할수업는 事實이나 同時에 政府의態度도 甚히 非立憲的이엿고 國民의 大多數도 不意의 解散에 對하야 不滿을 抱懷하고 잇슴으로 總選擧도 이와가튼 空氣가 相當히 强하게 反映하야 旣成政黨이 絶對多數를 獲得하게 될것은 明白하다 그리고 政府가 期待하는 新黨運動과如한것도 昭和會 國同等 小會派의 合同이 實現되드라도 政民의 旣成勢力이 現在와如히 反政府意向으로서 結束하여잇는以上 크게 期待할수 업고 實現도不可能함으로 總選擧後現內閣은後退할수바게업슬것이다 政府一部에서는 再解散을 자조宣傳하나 一定한 目標라든가 理由가잇스면몰라도 그러치못하면 再解散의 擧는 到底히 成立될수업다

再解散斷行不辭
對立激化의程度如何에따라
選擧後의時局決定乎

【東京電話同盟】總選擧까지 나머지期日이 十日餘인데 政民兩黨의 反政府熱은 마친내 熾烈하게되여 只今의 形勢로보면 一擧內閣不信任案提出도 豫想하지 안홀수업는 情勢이다 政府는 旣成政黨側의 硬化를 選擧對策的意味로 淸做하고 比較的 樂觀視하면서 依然 靜觀的態度를 取하고잇다 그러나 新黨樹立問題에 對하야는 林首相이 當初에 意圖한바와如히 新黨의出現을 期待하기는 現下의情勢로보아 到底히不可能하고 昭和國民同盟等 小會派를 中心으로한 新黨에는 政府는그리큰 熱意를 가지안흠으로 적어도 選擧前에 積極的으로 新黨工作에 進出하지는안흐리라고 觀測되는바 政府는選擧後의 政界의新展開에 期待를갓고잇다 卽 選擧結果 政民兩黨이 依然 三百七、八十名의 多數를 占할것은 確實하다할지라도 其分野에는 자못 質的變化가 생길것이며 一方複雜한 對立關係를 激化하고잇는 政黨側의 黨內事情은 特別議會에 際하야 設令不信任案提出論이 一部에서 이러나드라도 政黨側의 步調가 整頓되기까지는 相當한 波瀾을 惹起할것이며 나아가서는 逆으로 政黨分裂의 危機를 促進하리라하야 多大한關心을 갓고잇다 萬若政黨側의 結束이 意外로 鞏固하야 어데까지 反政府熱을 宣傳할境遇에는 前殷의『道義的解散』을 標榜한데서 再解散도 敢히 不辭할것이라는 決意를갓고 結局 總選擧後에잇서서 政府政黨의 對立이 어나程度까지 激化할는지는 今後政局의 動向을 決定하는것으로 注目된다

現有勢力을增加코 政府結局退去乎
非立憲內閣打倒의旗幟를鮮明히한政友會
總選結果를極히樂觀

【東京電話同盟】政友會는選擧期日이 切迫됨에따라 立候補者數도 漸次增加하야 二百七十名을 突破하게되엿슴으로 豫力戰線統一을 圖하야 公認候補는 嚴選主義에 依하야 二百二十四、五名에 꼿치게하고 非公認候補에 對하여는 地方支部의 連絡을 緊密히하야 愼重情勢를 調查한後 적어도 三十名의 整理를 斷行하야 公認非公認 都合二百五十名以內에 멋게하고 鞏固한陣容下에 輿論을 無視하는 非立憲內閣打倒의旗幟를 擧하고 全線에 亘하야 言論戰을 展開시키기로 되엿다 그리고 目下全國各地方의 情勢에對하야 地方支部의 情報를 綜合하면 林內閣의 不法非立憲的 解散에 對하야 穩健公正한 國民大衆은 其無謀한데 相當히 不快를 感하고 林內閣의 不評은 漸次國民間에 昂揚되고 나아가서는 여와 步調를 가티하는 群小會派의 氣勢가 不振하야 全線이 모다 憲政擁護의 同一旗幟下에 共同戰線을 펴고잇는 政民兩黨은 壓倒的勢力을 示現하고잇다 이러한 情勢로보아 選擧委員會 本部에서는 宮城縣의 一名減과 千葉、山形、福島、青森、富山、石川、三重、岐阜、和歌山、岡山、德島、山口、長崎、大阪、熊本各府縣의 現狀維持以外에 모다 多少增加하야 關東十一名 東北五名 北信五名 東海三名 近畿三名 中國、四國八名 九州五名合計四十名이 增加되여 解散當時의 現勢力百七十二名과 合하야 二百二十二名의 多數에 達하야 第一黨이 될터이고 今後多少豫想에 어긋나는 일이잇드라도 二百名을 突破하게되엿는바 反政府黨의 友黨인 民政黨과 合하면 三百八十名以上을 獲得할것은 거이 確定的인데 總選擧結果國民의 總意가 現內閣의 存在를 要望하지안는것이 明白하게될것임으로 林內閣이 眞正으로 立憲政治를 理解한다고 하면 卽時 辭職할것이나 그러한 非立憲的解散을 行하는 內閣임으로 總辭職은 到底히 期待할수업고 選擧後에는 아마 政民兩派의 一部에 觸手를 뻐처 破壞或은 新黨組織等劣惡한 手段을 講究하야 延命을 策하리라고 思惟되나 倒潰를 압둔 現內閣을 새삼스러히 脫黨까지하야 이를 支持할 新黨을 組織하려하야도 適當한 黨首와 錚錚한 이데올로기가업는 單純한 林內閣支持의 新黨이 到底히 實現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안코 結局 特別議會에 드러가 政民兩派의 壓倒的 不信任에 遭遇하야 內閣은 放棄를 不得已하게될것이다 政府部內에는 解散을 主張하는이도잇다하나 이것은 斷로 全國民으로 國民을 愚弄하는것인바 再解散結果는 一層 現內閣不信任의 國民的總意를 明示하게할뿐이라고 觀測되나

林內閣掛冠必至
新黨은浮動分子의糾合에不過
不安한消極的政局繼續未免乎
社大黨의選擧後政局觀

【東京電話同盟】六十五名의 公認候補를 擁하고 四十名의 當選獲得을 指目하는 社會大衆黨에서는 總選擧後의 政局에對하야 現狀維持派와 革新勢力의 抗爭이 激烈하게되여 이러한 情勢下에 有力한興黨을 가지못한 林內閣은 特別議會開會를 기다리지안코 掛冠을 不得已하게될것이다 그리고 次期內閣에對하여는 政民等 旣成勢力陣은 其內閣이 如何한性質의 것이라도勿論 이에追隨할것임으로 表面的으로는 安定을 裝하는 消極的政局이 繼續하야 國民大衆은 其去就에彷徨하고 物價騰貴 其他內外不安의 情勢는 勤勞大衆으로 하여금 도리혀 焦燥不安한가운데

이데올로기에依한 『뿔락』形成排擊
佛外相外交方針闡明

【갈손느(南佛)十八日發同盟】佛外相델보스氏는 十八日正午南佛갈손느에서急進社會黨員의 午餐會에 臨하야 刻下의 國際政局에 對한 佛國政府의 外交方針을 闡明한 獅子吼를 試하엿나 佛國外交의 目的은 平和擁護에 爲하야 佛國政府는
一、局地的相互援助條約에 基한 聯盟勢力의 回復
一、西班牙內亂不干涉協定의 嚴正且統制잇는 實施 及西班牙의 獨立을 確保하기爲한 義勇軍의 撤回及內亂調停
一、三大民主主義諸國과의 協力하야 이데올로기에依한 뿔럭形成排擊
一、蘇聯邦波蘭小協商國과의 友交關係의 維持增進及現行條約에 違反치안는 新協定締結에 依한 各國과의 友交的連鎖確立
一、一般的軍縮을 實現하기爲하야 佛國政府는 주네브軍縮幹部會에 軍備抑制公開를 提言할것
一、國際貿易回復에 依하야 自給主義的國家의 漸次的解消와 방쎌란드首相이 實現에 努力하고잇는 各國民의 平和協調에 向하야 邁進할 決意이다 聯盟은 不祥事件勃發阻止에 失敗하엿스나 聯盟이 업섯드라면 歐洲는 今後보다도 더 一層不幸한 事態에 陷하엿슬것이다 聯盟은 今後 被侵略者에 對한 全體的援助政策을 放棄하고 局地的相互援助條約에 滿足할것이다

時局安定은可能
政民絶對多數되는時는再解散考慮
昭和會의今後政局觀

【東京電話同盟】昭和會에서는 總選擧結果와 政局問題에 對하야 左와如히 觀測하고잇다
『今回의 解散은 立憲政治下에잇서서는不當한措置인것은 勿論이나 政民等旣成政黨의 時局에對한 認識의欠如도 政局을不安에誘導하는重大原因이 되여잇다 選擧結果에對하야 明確한 判斷은 나리기가困難하나 假令旣成政黨이 絶對多數를 獲得한다하야도 依然時局認識을欠할境遇에는 再解散도 考慮된다 그러나 事態를再解散에 誘導하지안코라도 所謂時局認識을 가진新黨의 結成又는 旣成政黨의 質的變化에依하야 時局은 安定될수잇다고 思惟되나 內外의 時局은 한갓 政爭을 일삼을 時代가 아님으로 旣成政黨도 時局認識을 깁히하고 一致協力하야 時艱克服에 當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國民同盟 政局의 新展開를 待望하는 立場에서 林內閣의 解散을 歡迎하고 淸瀨幹事長을 總參謀로 政戰에 臨한國同은 二十名公認候補者中 十五名內外의 當選을 豫想하고잇다 그리고 選擧終了後의 向背에 對하야 今回의 解散을 歡迎한 立場에서 보면 政府與黨과 가티 보이나 政府와昭和會의 關係와는 全然다르고 政局의 新展開를 待望하는 見地에서 解散을 希望하엿스므로 곳政府自體의 解散을 支持하는 意味가아니다 政民兩黨이 選擧後 倒閣運動을 이르키면 國民同盟獨自의 立場에서 이에 合流할것이며 또政府가 再解散으로 迫하면 旣成政黨을 打破하는 見地에서 政府를 支援할것이다 如何튼 現狀打破와 새로운政局의 展開와를 根本的戰略으로 臨機應變하는 態度로써 微妙한政局에 處할方針이다

▲東方會 總選擧終了後의 政局은 結局林弱體內閣과 政民等의 弱體對黨과의 不明朗한 對立을 呈하야 國家的立場에잇서서 兩者의 妥協은 期待할수업다 그리고 林內閣에 對하여는 其政策의 欠如 時局認識의 不備 其背後에 國民的 支持가 업는 不安定性에서 必然崩壞될것인바 再解散과 가튼것은 單純히 常識으로 생각할수업는 것으로 박거더 政府는 其延命策으로 御用新黨의 作成에 狂奔하고 國民同盟 昭和會及中立을 標榜하는 一部의浮動分子는 이追隨하게되엿는데 假令이것이 實現된다고해도 强力한 國家的意識을가진 政黨은될수업다 東方會는 이러한 御用新黨의 撲滅을 期하는 同時에 正當한 時局認識을가진 同志의 獲得에 努力하면서 全面的 積極的 國家主義를 標榜하고 時局打開에 臨할 方針이다

小會派의態度
【東京電話同盟】

時代認識을强調
各道知事會議에서表示할
南總督의指導精神

南總督第二次招集으로 明二十日부터 開催될各道知事會議는 南總督就任以來十個月을 經由하엿는데 總督各道初度巡視도 終了되여 마친내 南政策의徹底强化가 反映되리라고 豫想되나 今回의 會議에서는 特히南總督의 精神的指導方針이 强調되여
一、國體明徵
一、時局의認識
이强調되는것은 一段注目을끌고 諮問事項中에도
一、國體觀念을 明徵하고 新時代에 處할帝國의 眞使命을明確히把握하야 그것의 普及徹底를 期할具體策
一、農山漁村振興運動의 從來의實績에鑑하야 今後에進行할具體策
一、勤勉貯蓄精神의涵養等이中心이되고 其他 災害救助의 具體策等이包含되엿는데 前記精神的指導方針에關하여는 各道知事로부터 意見을徵하고 그리고 緊迫된國際情勢에 對應할 半島의重要使命을 明徵히하는同時에 日本精神의 徹底的發揚에 努力하려하는點이 자못注目된다

知事會議
二十日부터開會

南總督의 施政方針을 徹底케할 昭和十二年度各道知事會議는 마침내 明二十日부터 五日間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開催키로되엿다 出席할 各道知事는 昨十八日 入京하야 十九日은 各其總督府를 訪問하고 總督、總監以下 關係局課長과 各其各自擔當局의 事務에 關하야 報告하고 또 協議를 行하엿는데 明二十日會議 第一日은 午前九時부터 開會、劈頭에 南總督으로부터 施政大綱에 對하야 訓示를 하고
一、國體明徵
一、鮮滿一如
一、時局의明確한把握
一、綱紀肅正
一、庶政一新
等 根本方針을 敷衍演說을 드러 約三十分에 亘하야 行한다 다음 大野政務總監은 總督의訓示를 敷衍하야 各具體的政策을 드러 訓示하고 即時 總督指示事項의 審議에 드러갈터인데 會議中에는 때마침 滿洲國 張總理의 來京을 마지하야 鮮滿一如의 方針은 一段强調되리라고 觀測되나 그리고 會議에 出席할 知事는 이미 全部 入京하엿는데 江原道知事는 負傷이로 神谷內務部長이 代理로 出席하게되엿다

知事會議日程
▲二十日(火) 總督府訓示 總監訓示 指示
▲二十一日(水) 指示 朝鮮軍希望事項 諮問答申
▲二十二日(木) 諮問答申 意見陳述
▲二十三日(金) 意見陳述 協議
▲二十四日(土) 協議打合

南總督을訪問
滿洲國省旗長一行

昨日午後入京하야 一泊한 滿洲國省旗長 日本觀察團 興安北省長 올진파토氏以下 一行 二十三名은 十九日午前十時總督府에 南總督을 訪問하고 여러가지로 會談한後 辭去하엿는데 一行은 府內를 見學한後 午後三時三十五分發 노조미로 歸國途上에 오를터이나

獨航空研究所開設

【伯林十七日發同盟】獨逸政府는 航空學及 航空技術을 綜合的으로 研究하기爲하야 航空研究所를 開設하고 길링空相臨席下에 十六日 航空省 大講堂에서 開所式을擧行하엿다

張國務總理
二十日朝新京發

【新京十九日發同盟】昨年末植田關東軍司令官과 南朝鮮總督과의 間에行한 圖們會談에 依하야 朝滿一如의根本方針이 確定되엿는데 張滿洲國國務總理는 이根本方針에基하야 滿朝間의政治的經濟的社會的融和實現을 圖코저 二十日午前八時 新京發、公式으로 朝鮮을訪問하야 南總督及 小磯軍司令官을爲始하야 總督府當局者와親히 會談하고 滿朝一如의 根本策의協定을 行하기로되엿다 또 張總理는朝鮮工業地帶北朝鮮三港을視察한後 三十日新京에歸任할豫定이다

蘇레나金鑛內에서
트派破壞陰謀發覺

【莫斯科十八日發同盟】倂行本部事件以來 蘇聯各産業部門內에 反革命的破壞工作이 續出하는데 十八日AP莫斯科支局이 後東方面에서온 情報라하야 報道한바에 依하면 레나金鑛內의 트로츠키派의 破壞陰謀가 發覺되여 主任技師二名外의 數名은 發電所와 新坑內의破壞行爲를 指導한嫌疑로 逮捕되엿다고 傳한다 反革命事件이 山積된 實情에 鑑하야 蘇聯檢察當局는 人手不足에 陷하여잇는데 위진스키檢事總長은 스탈린書記長과 協議한結果 檢事局의大擴張을 斷行하야 새로 檢事를多數補充하엿다고한다

各黨派別立候補

【東京電話同盟】十九日正午現在各黨派別立候補

民政	二六五
政友	二七〇
昭和	三六
社大	六六
國同	二〇
東方	一九
諸派	四三
中立	一一〇
合計	八二九
本日屆出	｜
辭退	四六
死亡	一

本社參觀
◀發明學會觀光團 四十二名 元湖常氏引率下本社參觀
◀東洋自動車學校生百卅名 李龍載氏引率下에 本社見學

人事·集會
◀李英九氏(同德女子普通學校長) 二十日午前十時本社講堂에서朴仁天孃과結婚式擧行
◀李淵敎氏(開城老儒) 入京人事次本社來訪

八面錄
◇白耳義首相이 米大統領을訪問하고 經濟平和會議에 關한相議를하리라고。
◇大國이正面에나서기 어려우니가 小國으로하야금 斡旋의勞를 보아달라는말인가。──
◇데비스氏의 歐洲歷訪의結果가 大體로 신통치못함에 鑑하야 大勢好轉은無望。
◇게다가 英國이 再軍備를斷行하는통에 蘇聯을비롯하야 야단법석。
◇한편으로 羅馬尼亞와友好關係를매진伊太利가 다시 獨逸과握手工作에猛進。
◇地中海、빨틱海의 競爭도그러커니와 百三十九隻의艦隊이 東太平洋에서 大演習을開始。
◇어지러운 꿈자리가터서 갈피조차 잡기어려운世相이니、다음幕은어찌되랴는고。

高級綢緞 옷감
韓靑商會
京城府桂洞町 電光一三九九番

新學期學用品 參考書具備
東光堂書店
文具目錄 要三錢切手
京城府齋洞四番 電光(3)三七〇番

聖峰映画園、新興キネマ合同製作 近日封切
全發聲朝鮮語 朝鮮初有海外輸出映畫
나그네
旅路
京城 明治座 同時 優美館
平壤 第一館 大邱 萬鏡館 釜山 昭和館 仁川 愛舘

信號鍾廉價販賣
現下各農村振興會에서使用하는信號鐘을 愛用하심을바랍니다 特히地方共同注文에는더욱特別廉價로迅速應하오며 鍾에刻字는無料로提供하나이다
仁川府京町通 張昌龍鍮器店

朝報案內
社員採用 男子五名 女子三名
(月給二十圓乃至三十圓 手當支給) 中學程度年齡二十五才ヨリ四十才迄希望者ハ履歷書持參面談ニ限ル 面談時間午前九時ヨリ午後一時迄
(京城黃金町二丁目)
愛國生命保險會社

支所長招聘
左記要地에 支所開設코저 支所長되실분을 招聘함
晉州、慶州、淸州、公州、順天、原州、春川、開城、江陵、水原、載寧、安州、定州、城津、間島、
希望者는 履歷書附送하심을 要함
京城黃金町二丁目
明治生命京城支店

毒虫の御用意
世界의家庭藥
봄철이되는요사이
毒虫이또다시
貴여운애기들의게
덤비겟지요
밉살마진毒虫의
압흘서서
멘소레ー탐의
準備를꼭!!
快活하고
純眞하고
健康해지는
멘소레ー탐
무엇보다도
조흔동무!!
メンソレータム
멘소레ー탐
特效
살것침 外傷一切 毒虫물린데 부르튼데
齒痛 神經痛 痔疾 化粧下 面刀後 벗꺼른
價 二十五錢 四十五錢 九十錢 一圓八十錢
4-3-A

汽動車脫線顚覆! 二名即死 三十名重輕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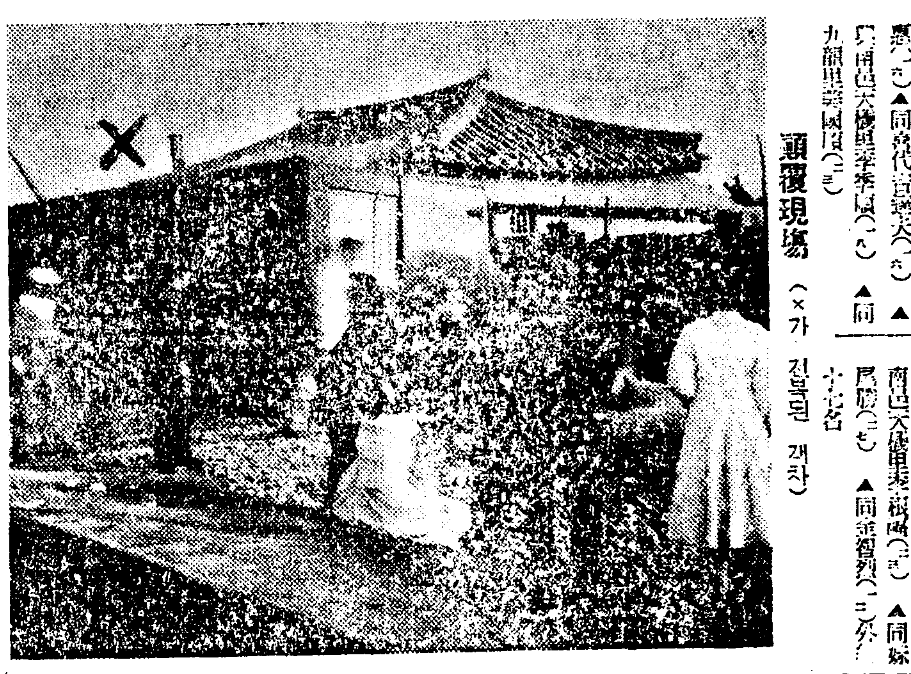
十八日咸興驛附近地點서 "新興鐵道"의 大慘事

【咸興】 [illegible]월 조선질소의 기동차가 잇서서 실패당한 대량살상(大量殺傷)한 참사가 아직도 함흥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안코잇는이때 또다시 그참사지점에서 반키로도 못되는지점에서 신흥철도(新興鐵道)의기동차가 두량(輛)식이나 탈선전복(顚覆)되야 삼십오명의 사상(死傷者)를내엿다 십팔일 오후네시십분 서함흥역(西咸興驛)을 떠나 흥남으로 향하야 진행하고잇든 신흥철도(新興鐵道)회사제구백호 기동차가 한대의 객차(客車)를 련결하고 동회사 권규련(權奎連)(二四)운전수가 운전하야 가지고 서함흥역으로 부터 약일키로나되는 제이공보교(第二公普校)것 『후미끼리』에 다다럿슬때 돌연뒤에잇든 객차가 외편으로 탈선하기시작하야 순간전후 두객차가 모두일시에 전복되얏나 승객약일백오십명중 두사람은 참문이 몸시 부디처즉사하고 삼십여명은 유리혹은 창문에부디처 모두중경상을 당하엿나 사상자의씨명은 다음과갓다

即死 ▲興南邑西區四一 井上米一▲雲南面上水里 金斗烜子 金毅行(二三)

重傷者 (瀕死)▲朝鮮病院看護婦 江口鶴子(二〇)▲興南邑九龍里 井上新一▲同天機里 山崎春彦(二三)▲本宮 西村國明(?)▲同西村國明(九) ▲同西村榮惠(一七)▲同本宮代吉美大(二七) ▲同 興南邑天機里李秀順(一七) ▲同 九龍里韓國哲(二三)

輕傷者 ▲興南邑天機里 黃永烈(二〇)▲同興南 同九龍里江口春子(二三)▲同興南 朝窒會社員崔承道(三〇) ▲同蘇 南邑天機里 [illegible](二三) ▲同 [illegible](二七) ▲同金宜烈(二三)外十七名


顚覆現場 (×가 전복된 객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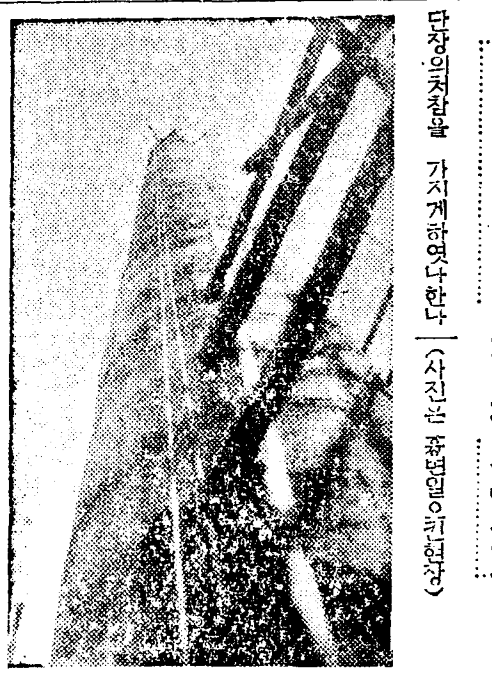
原因은調査中

이 참혹한 철도사고의 원인에 대하야서는 방금 함흥경찰서에서 기관수 권규련(權奎連)을 인치하는한편 차와 장 두명을 소환하야 조사 피해자를 극력 [illegible]고잇는중이며 당일은 함흥七四[illegible]의 군기제(軍旗祭)로서 흥남 서호진(西湖津) 본궁(本宮)방면으로부터 무려사오천명이 구경을 올러잇다가 기동차(汽動車)로 돌아가는 길임으로 서함흥역(西咸興驛)으로 일시에 평시때보담도 며배나승객이 만허서 큰혼잡을 이루고잇섯스며 사고를이르킨 이기동차 드차에도 승객이 일백오십명이상으로 보통때보담은 근배나되는 만원(滿員)이라고이엇다 이러케 만원승객(滿員乘客)이 타고잇어 사고(事故)현장은 에스(S)자형으로 완곡(彎曲)된커부며 또한 방금선로(線路)를수리(修理)하고잇섯다고하므로 무[illegible]것은 중량(重量)의[illegible] 때에 기관이고장이 생긴것이아[illegible]

百十尺煙突頂上에서 三代獨子墜落即死

장가갈날 열흘압두고 이액운

십구일오전열시십분쯤 부내한강통(漢江通)십륙번지 철도병원(鐵道病院)증축공사장에서 큰연돌을축조하는데 기리 일백열자나되는 꼭대기에서 연돌직공이 추락참사한 사실이잇다 그는 영등포신촌리(永登浦新村里)십륙번지에사는 림효봉(林孝奉)(二七)으로 작년삼월부터 연돌건조청부업자 고산(高山)씨의 고용인으로 큰연돌만을 전문으로 축조하는 기술로동자임으로 일급 삼원칠십전식받고 부내각처로다니며 축조하고다녓다는데 이번에 철도병원증축터에 새연돌을 올려가다가발판을 잘못디디서 연돌속으로추락하게되자 연돌우에서 가치일하든 김인철(金仁喆)(二一)이가붓들려하엿스나 그만추락하게되여 외중상(外衝傷)과 흉추골절로 현장에서 즉사하엿다는데 그는 오십가량되는 편모와 외숙부모밧게업는 삼대독자로 오는 오월삼십일에는 결혼하려고 택일까지 바더노코 비참히죽게 된것으로 현장에달려온 그의어머니와 외숙모와 약혼자 김큰아기(金大兌)(一七)의 비통한 우름소리는 보는사람으로 하야곰 단장의처참을 가지게하엿다한다


鐵道病院增築工事場의慘事 (사진은 즉변일어난현장)

今日·科學데-니 各處見學外諸行事

밤에는表彰式擧行

시내 공평정(公平町)에 잇는 조선과학지식보급회에서 금사월십구일 제사회과학데-를 기회로 이날을 전기하야는 십륙일 십칠일 과학지식보급에 관한방송이 잇섯고 십팔일은 과학데-강연의 밤이 잇섯든바 당일인 십구일은 오전아홉시반 본사옥아페서모혀 본사견학을 마치고 이어 중앙방송국과 전화국과 과학관을 참관하엿나 그리고 이날밤에는 본사강당에서 과학데-식을 거행하고 밤에가 표창식이 잇슬터이며 강연과 영화도 잇슬터이라고한다 이어서 이십일은 시내큰공장들의 참관이잇고 이십이일부터 이십팔일까지는 시내각처에서 과학여관 영화공개가 잇슬터이라고한다 (사진은 과학지식보급회주최본사견학단일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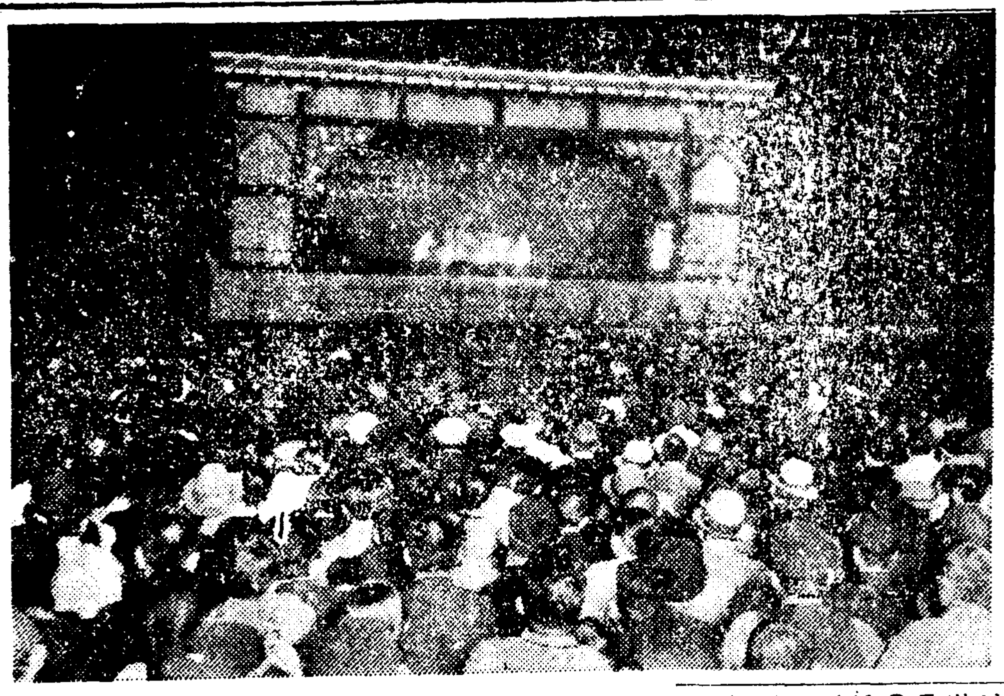
檢證地兩處서 屍體○○○個發掘

東大門署檢證隊歸還

【洗浦】 백백교사건 피살자시체 검증발굴차로떠난 동대문경찰서 각(角)경부보이하 일곱명의경관대일행은 철원군(鐵原郡)○○면 ○○산에서 시체발굴작업을마치고 십칠일은 세포까지와서 ○○동산중에서 참살자시체○○개를발굴하고 이어서○○면○○리에와서 시체○개를 발굴하엿나 계속하야 일행은 강원도각경찰의응원을어더가지고 십구일도역시 발굴작업을 계속하엿는데 전기○○동에잇는 살인본부는 약륙년전에 유모(劉某)와박모(朴某)두사람이 이사를와서 그들이사는집과 토지를 시가의배를주고사서 별로동리사람들과 상종도업시 잇섯슴으로 동리사람들도 다소수상히 녁이고 잇섯스나 이가튼 참변이 잇섯든줄은 꿈에도 생각지못하엿다고 동리사람들도 말하엿다 그리고 검증대는 십팔일저녁차로 경성으로 귀환하엿다

第三次檢證隊 陽平方面으로

인면수심의백백교주이하간부들의손에 무참히도 살해암장된시체를발굴해부하는 제삼차동대문서검증대일행여덜명은 강두경부보(江頭警部補)에게인솔되여 지방의책임자요 간부인범인 리한종(李漢宗)(四七)과리삼득(李三得)(三七)형제등을 암장처안내자(?)로다리고 이십일아침 양평(楊平)방면으로 출동하기로 되엿나 이지방에는 ○○면○○리와○○면○○리의산중에 무려○○개의원귀가암장되여잇는것으로 추측된다



長安名物夜櫻初夜 入場者萬一千

晝間은二萬二千餘名入場 昨日昌慶苑의雜踏

장안의 봄명물 창경원의 야앵(夜櫻)은 드디여 십팔일밤부터 화려한막을열엇다 이날은일요일이자 금년들고 다시업는 일기로 낫부터 몰려든 꼿구경군은 금년들고 첫기록을지어낫에만 입장한사람이 이만이천구백칠십명이란 어마어마한 수자를보여 이날은 실로장내에 송곳꼬질자리가업시 사람물결을처서 상춘해락의 절정을 보엿다 그리고 밤에드러서는 역시야앵개막첫날임으로 낫이나 다름업시 밀려드는 입장자는 일만일천구백사십륙명에 달하야 작년의 야앵첫날인 오천칠백이십명에비하야 배이상을 보이는성황이엿다 그리고 꼿은아직 만개를 보지못하야 봉오리가반만입을벌리고 잇스나 아프로 이삼일이면 만개를 볼터이라고 한다

사진은 연예장

劇場勤務든少女 夜半歸宅中逢辱

時計와現金까지被奪

십팔일밤 열한시 사십분쯤에 시내 안암정(安岩町)에사는 약초극장(若草劇場)안내인 리홍남(李興男)(一七)(女)(假名)이가극장 근무를마치고 무박자기집으로가든길에 안암정(安岩町)백이십번지 식산은행야구운동장 근방이르럿슬지음 나히 약삼십가량되여보이는 양복입은 젊은사나이가 갑작히 그에 아페 나타나면서 전기 리홍남을 운동장 어둠컴컴한 곳으로 끌고들어가서 폭행을한 나머지에 그가팔목에 차고잇든 칠원짜리 크롬시게와 현금오십전을강탈하여가지고 어디로인지 도망하엿다고 한다 그는 붓그러운생각에 그아버지에게만 이야기하고 즉시고발을하지안코잇다가 새벽네시나되여 안암주재소로 이사실을고발해왓슴으로 보고를바든 소관동대문서에서는 곳편강(片岡)서장과 평림(平林)사법주임이현장에달려가서 검증하는일편방금형사총동원으로 그범인을 엄탐중이나 피해자가 나어린사람인만큼 그단 겁이나서가해자의인상 몸맵시가튼것을 자세히기억하지 못하여서 수사가대단곤난한것갓다고한다

家庭不和로飮毒

십칠일밤 열한시오십분쯤에 시내사직정(社稷町)일백십구번지의사호리 리현태(李鉉泰)의 큰아들 원순(元孫)(二七)이가 자기집에서·석탄산을먹고 죽으려든것을 부근병원에 입원치료중이나 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원인은 가정불화라고한다

朝鮮美展 審査員參與選定

參與者는이번에새로된것 朝鮮人側에金殷鎬氏

오월십륙일부터 륙월오일까지 총독부 후원에서 열리는 제십륙회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展)도 회기가점차 림박함에따라 총독부 학무국에서 그준비를밧비하는중인데 이번에는 전람회규정을 다소개경하는 동시에 심사위원도 전혀새로운 사람이두사람보이게 되엿고 또심사에참여(參與)제도를 채용하야 화단에새로운 화제를 던지고잇다 심사위원은 종래가부를 종하야 이인이상이든것을 이번에는 경비등의 관계가잇서 각부에 단한사람으로하야 동경(東京)방면에서 초청케하고 그밧헤심사참여로하야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상을바든사람중 공로와 지식과경력이잇는사람을 이인또는삼인을 두어 심사위원의당에의하야 심사의보좌를 하게되엿나 이와가튼 참여제도를 채용하게된점은 조선의 미술가를 우대하는의미에서 조선제도라는 평도잇슬것이나 일면에는 심사위원이 각부에 단한명이되고 그미데참여원이 잇다는것은 참여의 인선과아울러 심사제도가 불철저하다는 불만의소리도 업지안흘모양이다

名譽的인職責 優待와同時에 富永學務局長 談

이상새제도실시와 심사위원결정에대하야 부영학무국장은 다음과가티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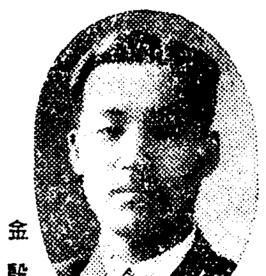
심사위원은 경비등의관계로각부에 한사람식으로하고 그위원의 추천은 동경미술 학교장에게 전혀일임하엿섯다 그리고 그미데 조선에잇는 미술가로서 참여를두게하엿는데 이것은 미술가를 우대한다는 뜻도잇스나 그실은 거이명예적으로 일을보아주게한것이다

審査員

▲東洋畫 帝國美術院會員 荒木十畝
▲西洋畫 東京美術學校敎授·田邊至
▲彫塑及工藝 帝國美術院會員 東京美術學校敎授 津田信夫

參與

▲東洋畫 松田正雄 加藤儉吉 金殷鎬
▲西洋畫 山田新一 遠田運雄
▲彫塑及工藝 淺川伯敎 五十嵐三次


金殷鎬

朝鮮美術展覽會規程中改正個所

第三條 出品은鑑査를經한것에限하야 此를陳列함 但 左의各號의一에 該當하는 出品은 鑑査外로함

一、朝鮮美術展覽會審査委員(以下委員이라고稱함)又는委員이든者의出品

二、朝鮮美術展覽會參與又는參與이든者의出品但一點에限함

三、朝鮮美術展審査委員會委員長이 推薦한者의 出品但一點에限함

四、前回의朝鮮美術展覽會에서 特選된者의 出品但一點에限함

第六條의二 朝鮮美術展覽會에 評議員及參與를置함 評議員은 朝鮮美術展覽會에關한朝鮮總督의 諮問에應하야 意見을陳述함 參與는 朝鮮美術審査委員會委員長의 指揮를바더 出品의鑑査及審査의 事務를 補助함 評議員은 朝鮮에서 美術에關하야 功勞잇는者又는 美術에關하야 學識經驗잇는者中에서 朝鮮總督이此를囑託함 參與는 朝鮮美術展覽會에서 選賞된者中에서 二回째마다 朝鮮總督이此를囑託함

優秀한技術과誠實을모토로하는 小林工業事務所 水道機械 鑛山機械 煖冷房 衛生工事 昇降機 에스카레-터 보-링 의設計製作은 京城府旭町ルビ 電話本局三九五九

芳香 イナミン 一吹必殺

二名엔死刑言渡

上海猛血團事件公判

【海州】 르보—상해맹혈단(上海猛血團)사건관계피고 안악(安岳)출생의오면식(吳冕植)(四五)등다섯명에 대한 『치안유지법위반급살인강도』사건의 제오회속행공판은 지난십륙일 오후한시부터 해주지방법원(海州地方法院)형사법정에서 이정원(伊井院)재판장주심과 리(李)이천(二川)량판사의 배석중촌(中村)검사의 관여미에 개정하엿는데 재판장으로부터 전번구형과가티 다음과가튼 주형을언도하엿다

▲死刑 吳冕植(四五)▲同 韓道源(三二)▲懲役五年 金昌根(二七)▲同 柳瑩鎬(二三)▲懲役三年 金殷鵬(二三)

家屋倒壞로 四名死傷 振威郡下의慘事

십칠일오후 세시반경 경기도진위군평택면 합정리(振威郡平澤面蛤井里) 리조학(李兆學)이가 자기집의 기동을가는 공사를 하는중에 집이쓸어지기때문에 리조학과이부 리금세(李今世)리성극(李盛極)리상훈(李相勳)등네명이 깔렷섯는데 그중에 리상훈은 직사하고 세명은 중상을 당하엿다한다

高啓學院出資者 高啓河氏追悼

십구일보성학교에서

시내혜화정(惠化町)에잇는 보성고등보통학교(普成高等普通學校)에서는 십구일오전열시부터 그학교마당에서 그학교경영재단인 고계학원(高啓學院)출자자 고고계하(故高啓河)씨의 십일주년추도회(追悼會)를 거행하엿는데 교장김성수(金性洙)씨의 개회사가잇슨다음 고계학원리사장방응모(方應謨)씨의 추도사로 성대히식을맛치엿다한다

定州署員上京活動 仲買店支配人檢擧

평북정주서(定州署)양(楊)경부는동서 거형사를 대동하고상경하야 십칠일시내 명치정(明治町)이전원(二川屋) 중매점시배인 [illegible]을 검거하야정주로호송하엿는데 사건내용은그 세아(富士)중권회사 전무강천(岡川)이와 관련된사건으로 추측되며 전기[illegible]은 전일경수서에 한번 검거취조다가 그간석방한터이라고한다

集金橫領하고 鹽酸飮毒自殺

십칠일 오후아홉시 시내남미창정(南米倉町)칠십오번지 경성제유회사(京城製油會社)집금원으로 시내익선정(益善町)일백 삼번지림창식(林昌植)의집에 머물고잇는 김명관(金明寬)(二九)은전기회사안에서 공업용염산(工業用鹽酸)을먹고자살하려는것을 가티사무보고잇든 다른사원들이 발견하고 곳 어성정(御成町)소도병원(小道病院)에입원 식혀 응급 치료를 하엿스나 가튼 열한시 반쯤에드디여 죽고마럿다 그러면 그는웨죽엇는가 그는 전기회사의 시내집금원으로 근무중 일금삼백은 아들을 데리고 전기주소에서 겻방사리를 하고잇는 형편에 삼년전에 상처하자 집안살림사리가 수선하게되여 술로 이것저것 여러가지 근심을 이즈려고 애쓰든끄테 그만회사돈에손을 대이여서 죽기전까지약일천원가량의돈을 횡령소비하엿다고한다 이러케 되고보니 그뒷수습을 할수업고 회사에서도 근간에는 사실을 알게되매 마음약한그는 그만 자살하고마럿다고한다

天氣豫報

豫報 京城地方은今夜晴이며 明日은晴이고 京畿全道도갓다

昨日最高 十五度一
同最低 一度八
今朝最低 五度五
今日正午 十八度四

스포-츠欄

培材崔君優勝 昨日의卓球戰經過

京城運動具商會主催의 第十七回 春季卓球大會第一日一般男子部戰은 十八日午前十時부터 來靑閣에서 열렷는바 다음과가튼戰績으로 培材高普의 崔根恒君이 總督府林在頓君을 이겨 連三年間制覇하엿다

【準決勝】 崔根恒(培材)3…1高麻鎭(普專) 朴在頓(總府)3…0周鍾洪(普專)

【決勝戰】 崔根恒(培材)3…2朴在頓(總府)

喘息·神經痛 中風·高血壓 原因부터治療하라 今津博士의新療法 不治아니다

(研究中의今津博士)

이병은술, 담배, 화류병, 위장병, 당뇨병, 신장병, 감기, 대한등으로 신체를 기르는중에 혈액이 탁하야 [illegible]이낫버지고, 신경이 친해를 바듬으로생기는것인데 원인을 만드는더러운 혈액을 정화하고 [illegible] 순환을 조정케하고 신경의장해를 업새면 낫는다 결코불치가 아님을 다수한실험으로 확신을 어든 今津博士는 귀중한 식물로 동물에서 강력한 정혈제를 창제하야 그복용과 리기신 또는 이마즈민의 병용으로 고치기어려운 병을 원인부터 낫게하야 대단이기쁘게한다

中風에걸녀불수 혀구등으로괴로워하는분 고혈압, 동맥경화로 견비통 이명, 두통, 현기, 변비로 불면신경쇠약 졸중마비로 뇌일혈의 위험이잇는분

喘息 으로기침, 담, 숨가쁨, 호흡곤난등으로 고민하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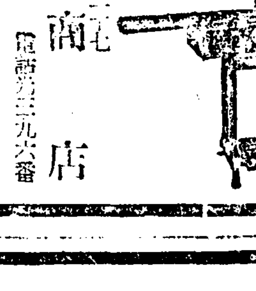
神經痛 이나 류마치스로 수족허리등의관절이압하고 곤난한분은

今津研究所 大阪市阪急新三國驛前 로주저말고오든지 조선일보지라고쓰고 본시를오려 병증상을 써서보내라。博士의도톡한경험료법, 양생법 기타주의사항을 상세하게일너준다

即効散 齒痛과 頭痛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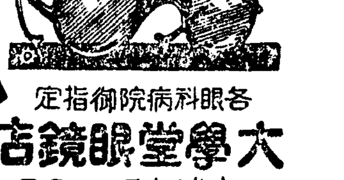
効力이速하나고 [illegible] 即効散은 神經痛에도 [illegible] 어느藥房에서든지 [illegible]
-갈도보나한번- 試用하시오
本舖 大阪 森田製藥所 全國藥店에잇슴

コントロールミシン 關稅引上과鐵材騰貴로 價格近間引上 裁縫ミシン買入好機
싱거ー十五種足踏 二百十五圓 同中古品 百五圓부터 싱거ー十五種手廻型 百六十圓 同中古品 九十五圓부터 國産足踏 百三十三圓 同手廻 百十二圓 (ミシンカタログ進呈) ミシン貸賃 中古ミシン高價買入



京城鍾路二丁目 楠商店 電話光化門二九六番

メガネ センモン



各眼科病院御指定 大學堂眼鏡店 京城本町二丁目 電本局②三七五五 振京一一二九 (カタログ進呈三錢)

推薦!!
今般道會議員改選에當하여淳昌邑內 申文休氏를最適任者로認定하옵고玆에推薦하나이다
淳昌郡有權者有志一同
淳昌郡靑年有念一同

원 물감 福壽 染料藥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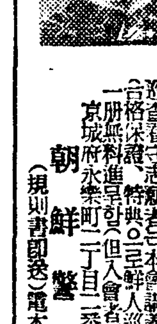
京城府大門通(南大門郵便所隣) 合資會社 福壽洋行直賣部 振替口座京城九三四番

▼そろばん下手では出世が出來ぬ 新式速成 珠算獨習の秘訣

圖解で上達の極意公開! 如何に讀み書きが上手でも珠算が下手では … 一錢切手 … 特價一圓 … 發賣元 現代出版社 大阪市東淀川區 振替大阪五六〇一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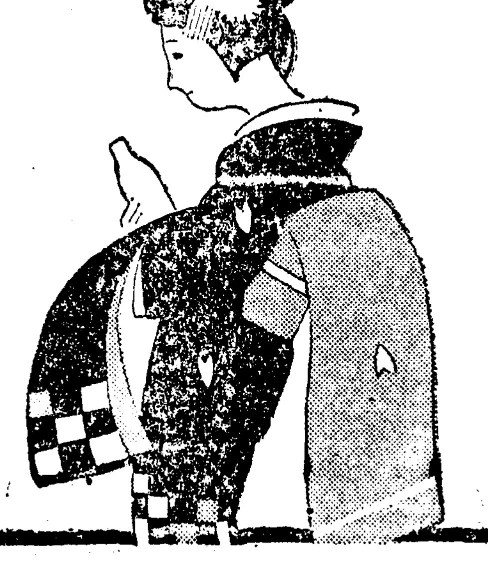
포리도-루
19400 流行歌 울기도하오리다 尹鍵榮 / 울건너千里길 全玉
19401 流行歌 내마음바드소서 金永澤 / 荒野의달 趙影心

巡査看守(講義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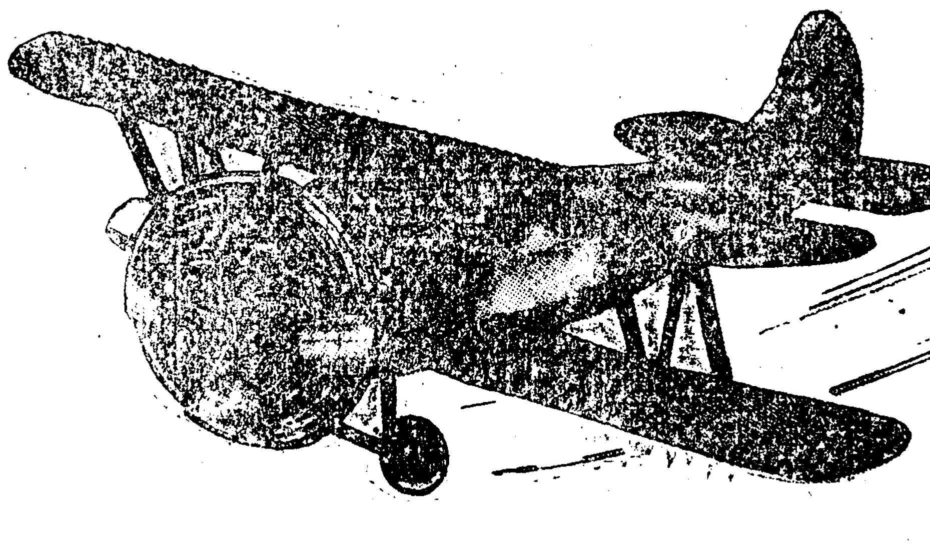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 合格保證, 特典으로鮮人巡査試驗問題集等 一冊無料進呈(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一番地 朝鮮警務學會 (規則書郵送)電本(2)三〇三〇番

新世界 理研淸酒 目下特賣中



大好酒家들에게 이快夢을맛보게해 陽春의陶醉는 이술한잔으로
(血壓亢進이되는일업다)
六鮮釀造株式會社



현대과학의 권화 강력치림제

現代科學의權化 強力治淋劑

림질 대하증연 제일힘센 신발병약

구로벨이 제일

구로벨의특장

一、림질치료원리(治療原理)
림균은뿌리가깁히박히는성질임으로내부로부터그뿌리를아조업새지아니하면초목에새싹이다시나듯이병이다시도지게되야거근하지안한다

二、사람의신체에는천연적으로혈액중에백혈구가잇서서균을막어업새는힘이잇슴으로살균될약제가조곰만드러가면균이깁히못드러가게할뿐아니라 전부몰사식힐수잇다

三、위장으로흡수안한약은염증(炎症)을아물게못하여도리혀연약한첨막(粘膜)을상하게한다

四、약이위장으로흡수되여신체각부를거처방광을통하야요도에까지이르면병균을완전히전멸식힌다

五、외치로국부에넛는약이나주사로세척하는법은잘못하면병균이안죽고도리혀약을피하야 점점속으로드러감으로위험하다 하물며깁히박힌병균은결코전멸되지안하야 다시재발되고또한그병균은더욱강하게되여악성으로변한다 내복약을먹어 생리작용으로신체내부에흡수되여 속속드리백혈구와뿌리를말녀죽여야된다 약이혈액중의 백혈구와합력(合力)하야 천하무적(天下無敵)의 강병이되여 아모리완고악성의림균이라도 씨도남기지아니하고 전멸식힘으로 다시후환이업시깨끗하게된다 결국합리적고귀한약으로된내복약구로벨을써야한다

一、효력최특상, 전세계에서 제일유명한독일약『헤루미도―루』도만히들엇고 전세계신발명약재만 합리적으로 만히드럿고

二、약효강대함으로 여러해된고질 특히 재발한 만성림질과 대하증은 물론 림독성으로된 방광염산증 섭호선염자궁내막염란소염에잘듯고

三、다른약가티지리하게 오래안먹고 만급성간에 일주일내로효과를보고

四、다른림질약은 다―위장이상하되『구로벨』만은 조곰도 안상하고 다른부작용이업슴으로 위장 약한분이만히먹어도 트림하나 안나는말은 효험본여러분들의 칭송하는말삼이오

五、위장으로 잘흡수(吸收)되여 오좀을통하야 병독을 속히전멸식힘으로 약을쓴지 몃시간만되면 오좀이시원하게나오고 아푸고 쓰린증세가 봄눈가티사라지고 고름이 점점감하야 아조림사(淋絲)까지업서짐으로 다시도지지아니합니다

京城西大門入口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三三四 光一〇七七 振替京城四九五〇番

만일무효면엇던책임이든지집니다

謝恩大特典
이십원자리를 두제주문하시면 (사십원)특별특전으로 무료로한제더보내드립니다

약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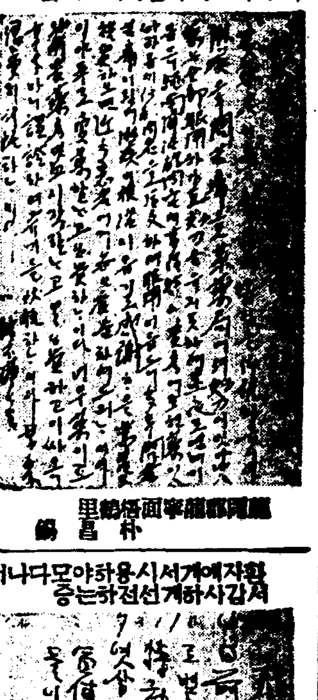
악성용	이십원
중증용	십오원
보통용	구원
경증용	오원

지방송료: 선금 십오원 / 대금인환 삼십오전

오래고생하시는분은이십원짜리한재만쓰시면좃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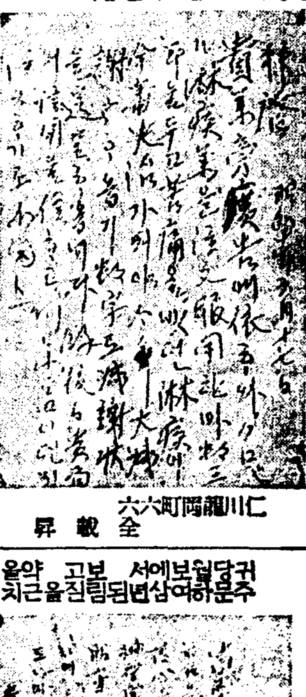
약효를증명하는이감사장을보시오 감사장업는약은잘안낫는약이오

삼년된 림질이 완치 의여 매약점까지 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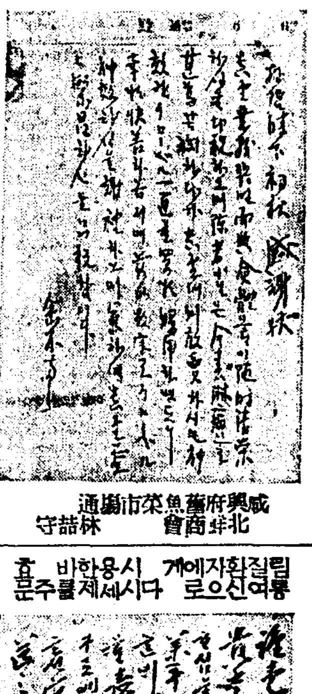
[illegible]里 朴昌錫

수년된 림질이 완쾌되여 신 성당약이라면 다신용하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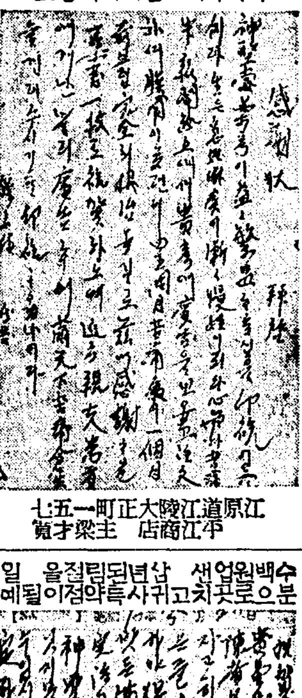
仁川龍岡町六六 全載昇

고통에고통하던 림질 이 폭 한갑에다나엇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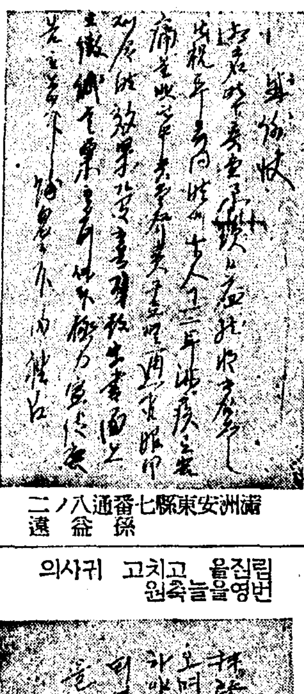
咸興府舊魚菜市場通 北斗商會 林喆守

사오개월 고통한림질이 다나아서 진시에게방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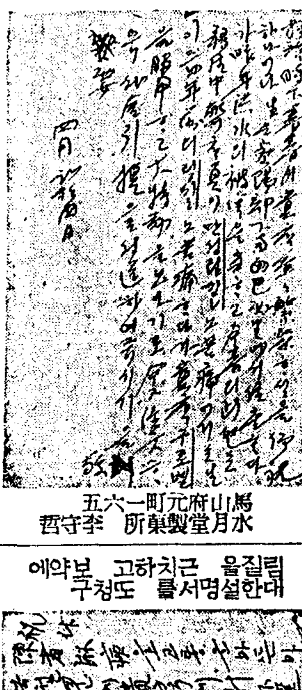
江原道江陵大正町一五七 平江商店 主梁才寬

수년된 림질이 일주분으로 측효보와 국력선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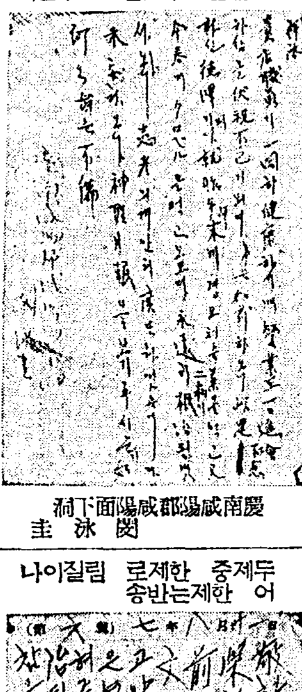
滿洲安東縣七番通八ノ二 孫益遠

수년전에 신효보고 맏성림집 에고통한점원 땁으로또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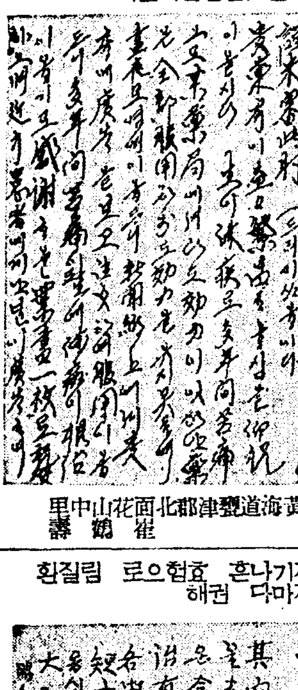
馬山府元町一一六五 水月堂製藥所 李守哲

작년에는 체증에 경오를금춘 에는림질을구도벨노아주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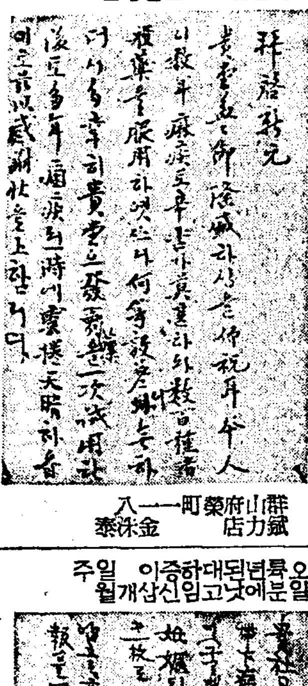
慶南咸陽郡咸陽面下洞 閔泳圭

약방에서 조라는약으로 안낫던림질이 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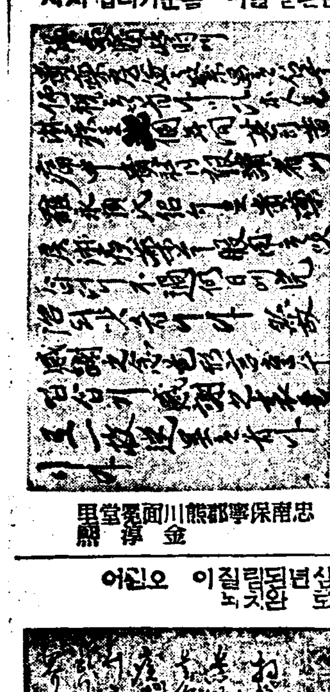
黃海道甕津郡北面花山中里 崔鶴壽

수백종약으로 한고 완 고한림질이 운권청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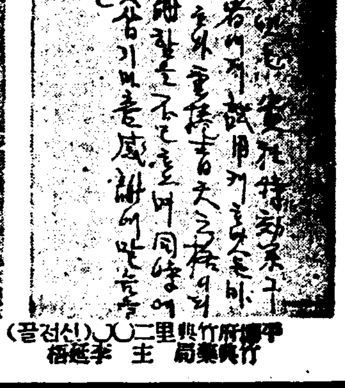
群山府榮町一一八 鐵力店 金洙泰

귀시 월 보독지소개 로칠개 년도된 림질이 볼눈기티업 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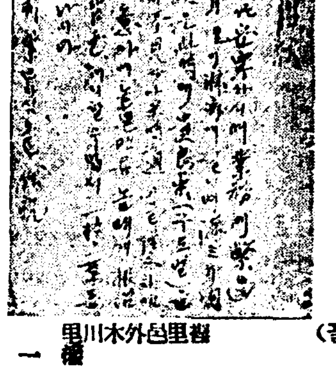
忠南保寧郡熊川面蒐堂里 金淳熙

환자에게서시용하야모다나어 서감사하게선전하는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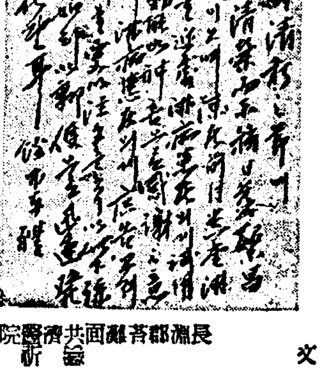
平壤府竹興二里二〇〇(신선골) 平壤藥局 主 李延梅

귀당월보에서 본고 약을 주문하여삼년된림질을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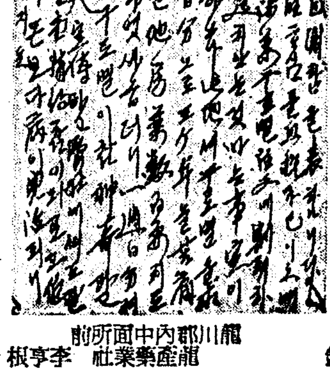
[illegible]外木川里 文一權

림질환자에게 시용한바 효 룡여신으로 다시세제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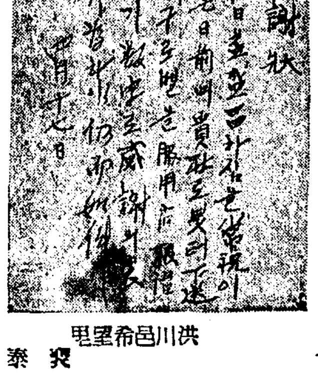
長淵郡[illegible]面共濟醫院 金祈鉉

수백원업샌 삼년된림질을 분으로곳치고귀사특약점이될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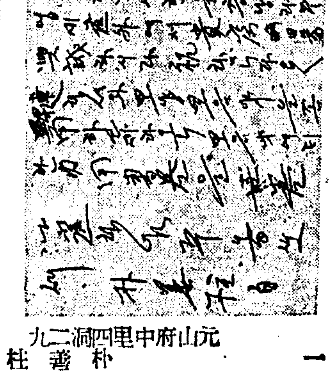
龍川郡內中面所前 龍藥業社 李亨根

림질을 고치고 귀사의 번영을늘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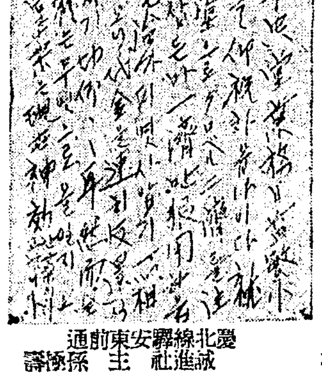
洪川邑希望里 [illegible]泰一

림질을 근치하고 보약에 대한설명서를 또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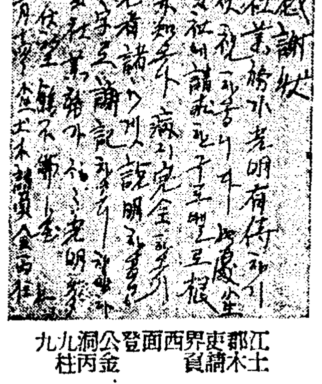
元山府中里四洞二九 朴善杜

두제중 한제로 림질이나 어 한제는반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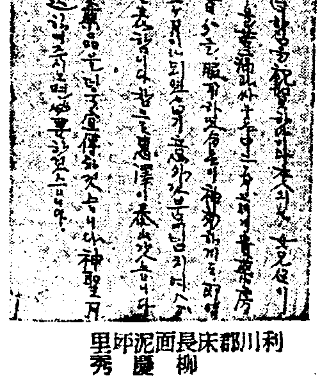
慶北線驛東安前通 誠進社 主 孫[illegible]譯

자기나흔 효험으로 림질환 자마다 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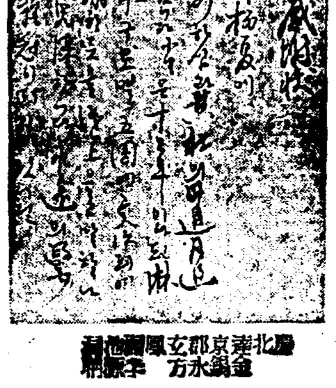
江原郡界西面登公洞九九 士木請負 金丙杜

오륙년된대하증이 일주 일분에낫고임신삼개월



利川郡床長面泥峴里 柳慶秀

십삼년된림질이 오린어 치토 완치녀



慶北[illegible] 金鍋水方 李[illegible]

幼稚園앨범

桃花幼稚園

당인리가는 기차가 연기를뿜브며 지나가습니다 벽돌공장굽다란 굴뚝이 하늘을 찌를듯이 소사잇는 옆을지나서 도화정마루턱을 올러가니 큼직한바

위들이 서잇는데에 도화유치원이 잇섯습니다

밋그리우에서 재롱을 피우던 어린이들은 "사진박자" "사진박자"하면서 모다사진박으려고 모엿습니다。

보모로게시는 김병숙씨는 교실안에 게시다가 뛰여나오면서 "먼데차저오시너라고 수고하셧습니다"하며 반겨주엇습니다。 밋그리에모여안저서 "어서 적어요 선생님"하고 재촉하는양은 정말귀엽기 짝이업섯습니다。

라디오

十九日(月曜)

◇午後六時 理科이야기 봄花草 李德鳳
◇同六時二五分(東)中等英語講座 (四) 三浦太郎
◉放送開始十週年五○回記念放送 記念祝賀順序(第三日)
◇同七時三○分 記念講演 朝鮮放送協會理事 方台榮 京城府會議員 曺秉相
◇同八時○○分(東)歌劇―日比谷公會堂으로부터中繼― 아올리스의이피게니아…글룩크作曲
아가멤논 澤藤眞吾
이피게니아 有山久美子
合唱 東洋音樂學校生徒
指揮 鏑木欽作
管絃樂 東洋音樂學校生徒 新交響樂團
指揮 杉山長谷夫
演出 鈴木英助
◇同八時三○分 歌曲 一、言樂 二、羽樂 三、編樂 四、編 五、太平歌
金蕉紅 河圭一
玄琴 金雨塘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漫談 浮世百態 黃材景

二十日(火曜)

◇午後○時○五分 새라려外
一、새타령、二、大字타이 三、흥타령 四、개고리타령 金南洙 裵桂香
◇同一時一五分 衛生講演 學齡어린이와結核 金光鉉
◇同六時 童話 반쪽병아리 高在天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分 初等國語講座 (四) 高橋平次郎
◇同七時三○分(平) 講演 換節期에흔한結核疾患에對하야 醫學博士 尹基寧
◇同八時 流行歌와歌謠 一、流行歌 가、그때를생각하면 金春城作詞 佐佐木俊一作曲 나、靑春悲歌 高馬夫作詞 金駿麟作曲 다、사나희마음 李扶風作詞 李文芳作曲 二、歌謠 가、아이아이 프리드르作曲 나、라ー필로마 이라티에드作曲 曹永恩 伴奏 OK管絃團
◇同八時三○分(平)新俗謠 一、맹꽁이타령 二、十生念佛 三、黃海山念佛 金閒鏘 李明善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天下太平 二、唱劇調 春香傳中離別歌 朴綠珠 鼓手 丁元燮

第一放送

◇午後○時五分(城) 物語
◇同六時(城) 童謠
◇同六時二五分(東) 講演
◇同七時三○分(城) 歌謠曲
◇同八時一○分(大) 落語
◇同八時三○分(東) 浪花節
◇同九時(東) 講演

長篇小說 찔레꽃 【14】

金末峰 作 金熊超 畵

운명의손(六)

크ー다란 꾸래미를 안은 민수는 동행이잇는지 뒤를도라보며 무어라고 말을하는모양인데 모자를 쓰지아니한 그의굽술굽술한 머리카락이 후르르 바람에 나붓기는것이 보인다。그사이 다른생각에 잠겻든 정순은 뜻하지안은곳에서 돌연히 나타난 민수를 발견한지라 지나치게 반가움과 놀라움이한데어울려 잠간동안 그는입을 봉한듯이 말이나오지가 안엇다 정순은 두뺨이 확근달아지는것을늣기면서 엘레베ー터문을 향하여 한발을 옴겨 노흘때다

『저봐요 저기저사람안야? 내발을 밟아준 얼간……』

경애가 턱으로 가라치는곳으로 엘레베이터껄도 고개를기웃하여 내다본다。

『나、잠간』

하고 정순이 밖그로 나가려고 쇠문에 손을댈때이는순간 엘레베이터는 스르르그물괘한 현기증을 느끼게하면서、아래로아래로 내려오는것이다。

『왜 무엇 이저버린것 잇섯소?』

하고 경애가 빠끔이 정순의얼굴을 드려다본다。

『안야요 그얼간좀 맛나보앗스면 하구요』

하고 방그래 우서보엿다。

『건웨?』

『……웨좀 똑바로보고 댕기지 못햇느냐고 무러보고 시펏서요』

『아서!』

경애는 눈살을 찌프리며

『그럿것은 업서요 내말이야밟엇지만 고의(故意)로 한것이야 아니겟지 그리고 손수건까지 꺼내주면서 사과를 한이상……』

『그럼 그만두조 엘레베이터ー로 내려와버리고 호호호』

정순은 자기의 아무러케나 꾸며대인말을 경애가 고지듯고 이러니 저러니 설명을 하는것이 여간우습지가 안엇다

그러나 유쾌한듯이 웃든 정순은 흥케 입을다무려버렷다。맘에도업는 롱담이엿지만 민수를가지고 사람을 압혜서 얼간이니 무엇이니 하는말을 함부로 주고바든것은 분명코 민수 그이를 모욕한것과가티 생각이 되여 그는 어떤 후회와 자책

을 늣기는것이다。

롱만잇스면 거기에 우슴불차저내고 모든 사물(事物)의 하나하나에서 유모아를 발견하는 정순의 성격을 민수는 항상

『내 우울한밤의 두꺼운 그늘을 쫓차내주는 오죽 하나의 태양!』

하고 례찬(禮讚)하엿건만 오날저녁 정순은 비로소 자기의 짓구진 롱담이 쓰듸쓴 양울처럼 언제까지나 혀바닥에 숨여잇는 것을 엇지할수업섯다。

정순의 일행(一行)은 엘레베이터가 막 아래로 내려간뒤 민수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도라보며

『여기 안즈시지요』

하고 자리를 권하엿다。

『응、참여기는 장히 싀원하네이……』

밧서 류십이가각가운듯한 그흙은이의 신은 흰고무신이 뻙넛케흙이뭇고 땀이두어군데 내배잇는 파나마 모자아래로 빨아대려입은 모시두루마기가 아무러케나 구겨진것을보아 그는먼ㅣ싀골서 올라온 손님인상 십흐다。

『저ー기보이는 저불이××극장이구요 그리고 저기가××오복점이구요』

민수는 이런곳에를 처음올라온듯한 그흙은손님에게 친절히 안내를 하는것이다。

그러나 로인은 그런말은 귀에드러오지 안는모양으로 그는 두리번두리번 좌우를 도라보고 그리고 자기를 각가히 사람이 업는것을 살핀다음

『야야! 그조 무엇이라카는사람이 만일에 우리말을 안드러준다카믄 어약고(안드러준다면 엇절고)

로인은 움눅드러간눈에 민수의 무릅위에 노혀진 꾸레미우호로 떠러트린다。

『엇저기는 엇제요 당하는대로 하지요 아버지』

민수는 민망한듯이 그아버지를 바라보고 속에서 치미러올라오는 한숨을 꿀걱삼켜버렷다。

민수는 이날아츰 갑작이 자기아버지가 상경한다는 전보를밧고 정거장으로나가서 경상남도 밀양(密陽)서 기차에올라온밤을 시달려온 그아버지를마젓다。

아버지가 역에내리자말자 맥이락 풀려서 아들민수에게 한이야기는 ××은행에잡힌 자기집논밭 일백오십마지기……(이것은 민수집의 전재산이다)의 경매(競賣)통지가 왓는데 암만 그은행지점장에게 애원을 해보아도소용이업서 부득이 본점으로 와서 좌우간 마즈막담판을 해보려고 온길이라는 것이다

민수는 아버지의 조반이끗나는것을 기다려 아버지를 뫼시고 ××은행으로 갓다。

그러나 행원(行員)을 통하여 과장(課長)을 맛나고 또지배인을 맛낫스나 민수부친이 맘먹고 올라온 그경매(競賣)취소라든가 연긔에 대하여는 아모런 대답도 엇지못하엿다。

옹속 드러간 두눈을 오울오물떨면서 암연히 안저잇는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민수는 마즈막 용기를 내엿다

『그럼 두취를 잠간 면회식혀주시지요』

『네ー오늘은 토요일인때문에발서 단여나갓습니다』

래일은 일요일이라 물론 은행문은 닫처질테이고 경매일자는 박두하고……이런것을 생각한민수는 밤금 밧브게 장부의 책장을 넘기고잇는 젊은행원에게 두취의 사택을 물엇다。

행원은 한참동안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안젓더니

『인사정 ××번지 조만호씨라는 그대입니다』

『네!조만호씨요』

민수는 어데서 드른상 십흔이 일홈을 입속으로 되노아보면서 은행을 나왓다。

이저녁에 민수가 아버지와 함께 ××백화점으로 온것은 아버지에게 구경도 식혀드릴겸도 한가지 래일 차저가려는 ××은행 두취 조만호씨에게 가지고갈 선물을 사려온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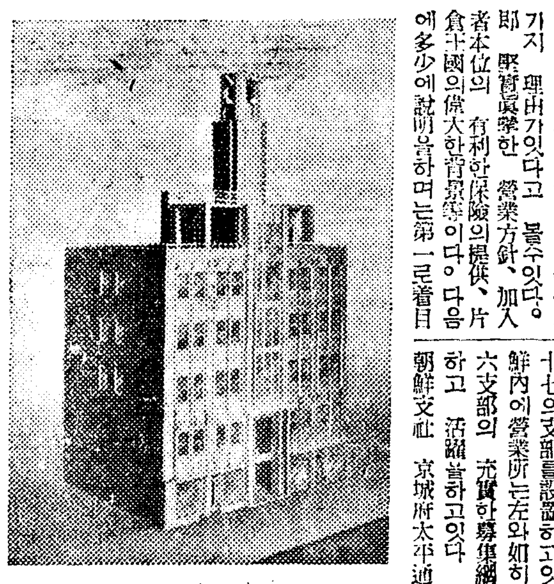
片倉生命과 片倉의 事業

增築落成을한片倉本社

躍進又躍進!! 記錄的業績을자랑하는 片倉生命保險株式會社

保險界의寵兒片倉生命의躍進은 實로驚異할만한事實이며 그異數의發展은다만感歎의一語에盡할것이다即大正十年十一月에創立한當社가僅僅十五年餘로서 多數의先驅會社를凌駕하고 光輝잇는記錄을保有하고잇슬뿐만아니라 日步月進躍進의 一路를밟고잇다。當社의業績이如何히優秀한가는半島에서活躍하는事實을一瞥하며는肯定할수잇다。當社는 保險會社로서는 最新의歷史를가지고 잇는會社임에도 不拘하고、約三十의同業者中에 在하야 每月投靠의新契約을 獲得하야 半島保險界를리ー드하고잇다。

然이면 何故로如此히長足的發展을 보게되엿는나 여기에는세가지 理由가잇다고 볼수잇다。即 堅實確擊한 營業方針、加入者本位의 有利한保險의提供、片倉王國의偉大한背景等이다。다음에多少에說明을하며는第一로着目



京城驛前에新築中인 片倉生命朝鮮支社社屋

할것은、堅實確擊한 其經營의態度이다。當社가 同業會社에 率先하야 社名에다經營者의姓을冠하야 片倉生命이라고 名稱한것은 會社經營上의 全責任은 어듸까지든지 片倉이擔負하고가겟다하는 責任觀念에서出發된것이다 元來 片倉家의事業經營方針은 堅實第一을主義로삼고잇다。大地에기우자게서서 步一步前進하는 이堅實主義가 今日의蔚蒼한 片倉王國을 建設하게도엿다 然故로 當社의 經營方針은 華麗하다고는 할수 업으나 質素하다。그러나 生命保險事業가튼것은 質素하므로信賴를밧고 質實하므로 將來를 安心하고 依托할수가잇슬것이다。當社의 發展은 理由업다고할수는업다。

다음에 着目할것은 當社는 加入者本位로 編作된 保險種類이다。當社에서는 利益配當附遞減養老保險、利益配當付普通養老保險、利益配當附有限挑込終身保險等의 保險種類가잇서서 各各掛金이 低廉하고、利益配當金이 有利함으로 非常한 歡迎을밧고잇다 더욱當社의 遞減養老保險은 契約後 三年되는해부터 每年一定한比率로 掛金이 遞減되어서最終의掛金은 最初의掛金의半額이되는保險 興味잇는保險이다。加入之五年에 一次式利益配當金이잇슴으로 加入者의 大部分은 此種保險을 選擇加入하고잇다。

最後로着目할것은、當社의背景이되는 片倉財閥의 諸事業의偉力이다。以下各記述하기로하고、當社의營業所及役員은 左와如하다。

當社는 東京에 本店이 잇고 全國主要都市에 二十五의支社、十七의支部를設置하고잇스며 朝鮮內에營業所는左와如히 三支社六支部의 充實한募集網을 布設하고 活躍하고잇다

朝鮮支社 京城府太平通二丁目
咸興支部 咸興府大和町一丁目
淸津支部 淸津府浦項洞二四〇
京城支部 京城府明治町一丁目
南鮮支社 大邱府中央通り
全州支部 全州府本町
釜山支部 釜山府榮町
光州支部 光州府錦町
平壤支社 平壤府濱町

當社의役員의 氏名은左와如하다

取締役社長 片倉 勝衛
專務取締役 片倉 五郎
取締役 武井覺太郎
取締役 片倉 武雄
取締役 片倉 直人
取締役 林 淸夫
專任監査役 町田 喬造
監査役 宇治 光治
監査役 尾澤福太郎
相談役 片倉兼太郎
相談役 今井 五介

社長片倉勝衛氏는 片倉家의同族으로서 現在片倉製絲紡績株式會社副社長、片倉殖產株式會社社長、東亞產業株式會社社長이며其他數會社의 社長重役을 兼하고 望이놉흔 人格者이다。

專務取締役片倉五郎氏는 片倉家一族의宗家인第三代片倉兼太郎氏의令嗣로서 現在數會社의社長또는重役을 兼하고잇다

相談役片倉兼太郎氏는前記한바가티 片倉家一族의總帥로서 片倉製絲紡績株式會社取締役會長인以外 數會社의社長또는重役을兼한實業界의重鎭이다。

相談役今井五介氏는 最近까지 當社의社長으로 同氏의地位聲望은 새삼스러히說明할바업거니와 日本內地는勿論 半島에까지 氏의名은 너무도有名하다。現在片倉製絲紡績株式會社取締役社長인外 會社重役 官私設의 名譽職을兼한것이 數十에達하고잇다多年我國產業界에 盡力한 功勞에 依하야 過般貴族院議員에 勅選되엿나 氏는第三代片倉兼太郎氏의伯父되는이이다。

人造羊毛界에君臨하는 日本紡績株式會社

『스테ー뿌루、화이바ー』는、現下纖維工業界에서時代의寵兒로서 또는非常時國際經濟에重要한役割을演하는、國際纖維로서 各方面에一大歡迎을밧고잇다。

片倉家는、夙히此點에着目하고 當社의諸般設備를擴張하며、獨特한技術로生產에當한結果、現下其生產額과品質은、含然他社의追隨를不許하는、斷然斯界의王座에君臨하고잇다。當社의發展이如何히놀낼만하냐하는것은、當社의資本金의增加하는點을보며는、가장此事實을雄辯할수가잇슬것이다。即當社는、昨年五百萬圓의資本金을一躍倍額의一千萬圓으로 增資를하고、去三月三十日의臨時株主總會에서、再次二千五百萬圓으로增資決定을하엿다。더욱公募株에는 多額의『뿌레미아』가附하는 大盛盛하는便이다。

如此히當社의發展은、旭日昇天의勢로、尙今豫測할수업는伸展力을包藏하고、纖維工業界에活躍을하고잇다。當社의本店은福島縣의 잇다。

世界最大를誇하는 片倉製絲紡績株式會社

當社는資本金五千二百五十萬圓本店을 東京에置하고 全國四十個所에 製絲所를두고 我國最大 否 世界最大의 製絲會社로 所有建物의延坪數二十六萬一千餘坪、製絲釜數一萬七千餘釜 從業員數三萬一千餘人에 達하며 其의生絲生產額은 八百九十萬斤에 及한다 이數字는 當社의躍動된것만을 擧記하엿스나 傍系製絲會社分을 加算하면은 驚異할만한 數字가 될것이다 實로一大製絲『트라스드』를形成하고잇다。

現在半島에는 大邱、京城、全州、咸興의四製絲所가잇고 大邱永興、龍仁의三個所의 蠶種製造所가잇다。

朝鮮產業界에活躍하는 片倉殖產株式會社

當社의事業은此에記述하지아니하드라도 半島에서는周知하는著名한會社로서東京에本店을置하고 平壤에營業本據를두고 農業、林業、鑛業、市街地의經營、乘合自動車、船舶等의 各種事業을經營하고잇다。

此에當社의事業을 一瞥하면은 平壤의市街及郊外에廣大한土地를所有하고 貸地貸家의經營을하며 黃州、寧邊、中和等에一大農場을經營하며、其의面積은一千三百町步內約一千町步는金田王畓으로化하야 地方農民이片倉의偉業을 仰하고잇다。

또林業은 黃海道、平安南道、全羅南道等의各道에亘하야 面積約一萬六千町步 共大規模의造林經營은 斯業關係者의視察研究上의 好資料가되고잇다

船舶部는 全羅南道康津出張所에서近海航路의 旅客、貨物의 運送을하며 自動車部는 平壤、新安州鎭南浦等地에서 乘合用自動車의 定期運轉과 自動車의取次販賣를하며 安州沙里院兩出張所에서는 肥料의 販賣를하여 巨額의金額에 達하고잇다。

當社는 平壤에支部를 置하엿슴뿐아니라 鮮內에는 左記의 出張所가잇다。

平壤支部 平壤府濱町
黃州出張所 黃海道黃州郡黃州面禮內里
中和出張所 平安南道中和郡中和面樂民里
新幕出張所 黃海道瑞興郡末田面新幕里
龍岡出張所 平安南道龍岡郡龍岡面玉桃里
康津出張所 全羅南道康津郡康津面南城里
寧邊出張所 平安北道寧邊郡獨山面龍興洞
鎭南浦出張所 鎭南浦府三和町
新安州出張所 平安南道安州郡新安州面元興里
沙里院出張所 黃海道沙里院邑

新築落成한片倉殖產平壤支部

米穀肥料界의雄 片倉米穀肥料株式會社

當社는 肥料의製造及賣買와輸移入業、農產具의製造販賣、米穀賣買와 委託賣買를營業하며 日本內地에서의活躍은 實로顯著하거니와、最近에잇서서半島에進出하는狀態는또한驚異注目할만하다。

加之 當社가全鮮一手販賣를하는昭和硫安 其他의片倉各種配合肥料는 當地의土質에適應하도록 製出된肥料로서 其需要는年年激增하고잇다

當社의肥料販賣額은 年額三千萬圓에達하며 內五百萬圓은半島에實施되고잇다。最近仁川에廣大한土地를買收하야、年產十萬噸의過燐酸工場을建設하고 明春早早에는 鮮內의需要에 充當하기로되여 全鮮擴張的活動을開始하게되엿스매 其將來에는 多大한期待를하고잇는바이다。現在京城營業所는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三九番地에 置하고잇다

東洋有數量을자랑하는 龍登、高原兩炭礦 炭質埋藏量이모다

龍登炭礦은、平壤에서北方百三十粁에離한地點에在하야、表土一枚를벗기면은、巨大한炭層이라고할수잇슴만한、埋藏量二千萬噸、炭質도大端優良하다。

片倉家에서는、本炭礦의經營에進出하야서는 龍登、球場間七·四粁의引込線을 本線同樣의廣軌鐵道를敷設하고 驛舍와驛員舍宅을建設하야 用地와共히 一切을總督府에寄附를하엿다。

當炭礦은、自家用發電所를施設하고、昭和八年以來採炭하고잇스나、片倉家에서는最近埋藏量一億噸에達하는 高原炭礦을買收하고 現在引込線을敷設中이매、規模의擴大에따러近近株式組織으로變更一大礦業會社를設立하리라한다。

一層積極的活動을開始한 產業界의活況에따러 東亞產業株式會社

當社는 硅砂와硅石의採掘及販賣、附帶한一切事業을하고잇다。最初片倉硅砂營業所의 名稱으로 營業을開始하엿섯다 其後硝子工業及鑄物工業界의 異常한躍進에 件하야 硅砂의需要는 더욱激增함으로 昭和十年十月 組織을株式會社로곤치고、積極的으로事業의擴張을企圖하얏든것이다。

創立直後、朝鮮黃海道海安面에다、福首浦出張所를設置하고 東京及兵庫縣에다 近代科學의精粹를모혼工場을設備하고、第一期增產計劃을樹立하엿나 近近竣成될豫定이라한나 그리고當社는 附帶事業으로石灰石及螢石의採掘과其販賣에도 着手를하게되엿다 從來의輸入品을驅逐하고 國產自足化의達成에邁進하고잇다。

前途가大端有望한 日本金峊興業株式會社

當社의鑛區는 忠淸南道洪城에 在하야 砂金採取를 目的하는會社로서 鑛區의地質은 理想的砂層、作業率及砂金實收能率이 大端良好하다。

當社는 六呎의『도렛자ー』로 作業을하고잇섯스나 昭和十年三月試運轉以來 採算關係는 極히 有利하며 前途이 多大한期待를 하고잇다。

蔚蒼한 片倉王國

以上簡單히 朝鮮에 關係하고 잇는 片倉家의 諸事業을 一瞥한바와가티 半島에잇는 片倉王國의事業은 其他多種類가잇스며 日本全國에亘한 片倉家의 諸事業을 紹介하라며는 實로 本紙 二頁以上 紙數를 要하게슴으로 이만하고 以下片倉財閥의 傘下에 屬되는 會社名을 列擧하면은 左와如하다。

片倉王國의事業概要

會社名	事業의概要
片倉合名會社	土地建物의所有管理、開墾、拓殖、有價證券、株式의所有、社債引受
片倉製絲紡績株式會社	生絲、蠶種의製造
日本紡績株式會社	스테ー뿌루·화이바ー、絹、紡絲、富士絹의製造
日華蠶絲株式會社	絹綿絲布事業과加工業、綿花、蠶繭、集煙草其他商品의賣買輸出及委托賣買
長崎製絲株式會社	製絲
薩摩製絲株式會社	製絲
片倉江津製絲株式會社	製絲
備作製絲株式會社	製絲
片倉佐越製絲株式會社	製絲
川岸製練株式會社	屑絲、生皮苧의精練
滿洲蠶絲株式會社	生絲、蠶種의製造
片倉越後製絲株式會社	製絲
松江片倉製絲株式會社	製絲
片倉磐城製絲株式會社	製絲
岩手縣是製絲株式會社	製絲
片倉共榮製絲株式會社	製絲
多摩製絲株式會社	製絲
佐賀縣是蠶業株式會社	蠶種製造
北九州蠶種株式會社	蠶種製造
片倉生命保險株式會社	生命保險事業
富國火災上海保險株式會社	火災海上保險事業
片倉殖產株式會社	主로 朝鮮에잇는住宅地及農林業의經營
片倉米穀肥料株式會社	肥料의製造及賣買와輸移入業、農產具의製造販賣、米穀賣買及委托賣買
昭和興業株式會社	不動產及有價證券의所有賣買
東邦石油株式會社	機械油、輕油、아스파르드其他化學工業品의製造販賣及原油、重油、其他油類의輸出入及販賣
株式會社美篶商會	寫眞機械及材料의輸入、製造卸商
日本機械工業株式會社	소인도、消防機械、消防自動車及諸機械의製作販賣
日本소리데지도株式會社	當社의事業에關聯되는他會社의株式所有又는投資道路舗裝用소리데지도의製造施工
茨城石材合資會社	建築石材、其他一般石材의施工販賣
東亞產業株式會社	硝子原料硅砂의精製及販賣
昭和絹靴下株式會社	絹靴下의製造販賣
內外金屬工業株式會社	東鉛板、鉛鋼板、亞鉛板、各種金屬機械、特殊建築金物의製造、스데레스機具加工一般、特殊自動車及구라이다ー의製造修繕
大東燃料株式會社	石炭及煉炭의製造販賣
日本金峊興業株式會社	砂金의採取
協和商事株式會社	不動產及有價證券의所有賣買

濃淡自由でモダン化粧が出來る

マスター白粉 千番
마스타ー

白粉먹음이 너무單純하야粉만칠거티 醜人박을은粉化粧』으얼골이 커뵈여大損이다、목과턱、이마가 틀니게……濃淡이 自由롭게되는 마스타ー粉白粉이면 新鮮한 表情美가 豐潤한化粧을 할수잇다

MASTER FACE POWDER

バニシング
マスタークリーム
마스타ー크림
サラっとよく伸びて榮養が强いので春先にとても爽か……

學藝

個性擁護의限界
—現代휴매니즘의社會的背景—
② 玄民

지ー드의轉向은 처음부터 이러한 矛盾을 內包한 轉向이엇다。그는『人間性의擁護』를 爲해 콤뮤니즘으로 轉向한것이다。그러나이곳에는

重大한 前提가 缺落되어 잇지아니한가。……그의『各人의個性』이란 파쇼나트로키스트나 또는 小市民을 包含하지아니함을 밝힐必要가 잇지아니하엿슬까。파쇼에 抗하는 意味에서 人間性을 擁護함이 充分히 進步的인意味를 갖고 오늘의 知識人의 거의一致해 支持하는 立場임은 疑心할餘地가 업다。그러나 그것이바로 콤뮤니슴의길로 通하는것일까。그곳에는어떠한限界가 잇슬것이아닐까』

이말은 前番에 내가 지ー드의 轉向의 이矛盾을 指摘해한말이다。

그러함에 不拘하고 내가 지ー드에게 感動되고 期待한것은 李氏도말하듯이 一步라도 前進하는 그의行動을 높게評價하기 때문이엇다。蘇聯을訪問한지ー드를感激으로서 歡迎한 그땅의大衆은 또한 勿論 나以上의 聰明으로써 그를 마진것이엇슬것이다。그곳에는 아무런 陰謀도謀計도업섯슬것이다。아모리 矛盾을 內包한 人間일지라도 그가 어떠한

僞善과策略으로가 아니라 良心으로서 歷史建設의 方向으로한거름 내어디딀때에는 大衆은 그의矛盾을받듯이 快癒된性質의것으로 밋고ー또는期待하고ーー그것을 剔出 批判하기에압서 그를 歡迎하고 擁護해드리는것은 아모런 舊式政治家的인 陰謀術數도 아닐것이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旅行記를發表한뒤의 지ー드에對한 蘇聯側의 批判에對하야 그래도나는지ー드를 아까워햇든것인가。

勿論 蘇聯側은 지ー드批判에잇서서 오로지 峻烈햇든것만은 아니다。우선 프라우다紙는 지ー드行動의 客觀的政治的意味를 峻烈히 批判한後『그(지ー드)는 이책(旅行記)속에서 友人의假面을쓰고 우리나라에 潛入하야 그의小說『私鑄錢쟁이』의主人公들과 가리 自己의본얼굴을 감추는사람으로 自己自身을 그리고잇다』고 非難하고서 바로 말을이어『그러나 이래서는 너무나 愚惡한 非難을 스스로自己몸에 들어붓는것이된다。우리는

暫間 이러한結論을 멈추자』는『人間』지ー드의 理解로 議論을 옴긴것이다。그리하야 프라우다紙는 지ー드의『突然한變化』를 그의政治的인動機로 보나도 그의變하기쉬운感受性으로 돌린것이엇다

이것은 蘇聯에對하야『中傷』을 퍼부은 지ー드에對하야 蘇聯은 그래도 지ー드의言動은 적어도 지ー드自身의主觀에잇서서는 虛僞가아니엇고 또는 그가 어떠한 陰謀미테ー 더卑俗하게 말한다면 지금 그에게 歡呼의 拍手를보내고잇는 陣營으로부터의 어떠한委囑을바더가지고 蘇聯訪問의演劇을지어낸것은 아니리라는 好意의寬容을 보여준것이다。그寬容의根據는 或은 지ー드自身의 발버온過去를 아끼는點도잇섯슬것이요 또는보다더 ——李氏도말하듯이——『지ー드가 서잇는 舞臺나아가서는 所謂良心잇는 知識人全體를 爲한』것이기도 하엿슬것이다。

이러케보아오면 問題는 여기서

一段落을 지은상십다。그러나 일즉이 그의轉向의報를듯고 危懼하면서도 歡喜한 나로서는 그를 아끼는나머지 지ー드自身의 가슴속으로 들어가 그를 살펴보지안흘수업섯든것이다。政治的舞臺에 나타난 그의行動을볼때 일즉이 그는 歷史建設의方向으로 한거름내어드디엇고 지금 그는두거름 물러섯다는點에는 아모異論가업다 그러나 이것이 지ー드의 主觀으로서 볼때에 또한 그러하엿슬까。그러치안으면 그는 自己딴에는 前後一貫한 態度를 取한것이 아니엇슬까。

이곳에서 나는 그의『稀貴한 理性』을 云爲하며 그것이갓고잇는 宿命的인 小市民性 따러서 그의 所謂 轉向의限界ーー그것이 갓고잇는 宿命的인 矛盾을 들추어내지 아니치못햇든것이다 豪富한家庭과 카트릭의 家庭속에서 자라난『良心的인知識人』지ー드는 처음부터 끗까지『眞理의探求者』엿다。이러한『稀貴한理性』과『良心』과

求道者的精神을 가진그는 따러서 必然的으로 觀念論者 理想主義者 個人主義者엿고 또따러서 그의 古典的 市民的인 理性은 市民그自體가 沒理性으로轉換되어가는 歷史的 腐敗와 步調를 함께할수업섯든 것이다。그의처음 轉向은 너무나 明瞭하게도 이곳으로부터 出發한것이엇다。그러나 同時에그의再轉向도 또한이곳에 原因하는것이아닐까。正當히도 李氏가 指摘하듯이 我們(?)이 如何히完成된 秩序라하드라도 지ー드는如前히 그것이 地上的秩序임을理由로서 理念과現實과의 齟齬를 말하고 宿命的인悲歎을 發하엿슬것이다。——

그러다하면 前番의轉向도 이번의再轉向도 지ー드그사람의 內的發展으로 볼때에는 何等의變化도아니오 結局 一貫하는코ー스를 밟은것이라할수잇지안흘까

前番 지ー드의旅行記에關해 내가쓴글은 그의階級性을 隱蔽하라한것도아니오 그의『理性』의超歷史性을 主張하라한것도아니오 또는 그의行動의反動性을

擁護하라한것도아니오 다만 宿命的悲劇의 主人公이된 그의內部生活을 잠깐 드려다본에 지나지안는것이다。내意圖가 이럿듯 그의行動의批判에잇지안코 專혀 그의內面生活의檢討에 잇섯든탓으로一見지ー드와 가튼立場에서서 지ー드를擁護함과가튼 印象을 주기쉬운結果가되엇든것이다。

科學

獸醫學에對하야
人醫學과區別되는基本概念
④ 金鍾禧

文明各國에서는 그屠場에 반드시 優秀한獸醫가 잇서서 屠肉을 檢査하며 其後에야 販賣를許한다고한다。筆者는 去夏에어느地方屠場을 가본일이잇다。

그래서 나는 그때에 一屠牛의肝에서 肝蛭을採取하엿는데其肝은 忌憚업시 市販에 供한다고하엿다。無識한市民은 其肝을 사다가 甚至於는 膾로까지 使用할것이다。비록牛의 肝蛭이直接人體에 寄生하기는 어렵다하지만 매우危險하고 또人道上으로 본다하더라도 可慮할일이라고 아니할수업다。밋지못할屠檢制度와 不潔한屠場에서 屠殺되는 肉類를 不得已使用케되는市民大衆은 모름즉이 肉類取扱에 注意해야할것이며 海邊개 범무서운줄모르는格의 生肉濫用도좀 考慮할必要가 잇지아니할가 생각한다。病疫이流行할時에는 特히 그러하지안흐면 안된다。滿洲地方과가티 獸疫의 常在地요 世界的根源地라고 불러지는 地方에서는 더욱히 注意하야할것이다。

滿洲는 肉類가 매우 低廉하다고한다。그低廉한 肉類를 想像할때에 筆者는 到底히 마음을 安靜히 할수가업다。人獸의 生命을 共히 威脅하는 各種獸疫이 常在하고 世界的 根源地라고하는 滿洲地方에는 檢疫制度가 매우 幼稚하고 不完全할것은 勿論이다。些少한 末梢의 問題이못하나 筆者는 獸醫의見地로서 滿洲의 獸疫에對한 警告를 족으마한 餞別로드리고십픈것으로 朝鮮의 獸疫을 近代的科學의 眼目으로 檢討되기는 언제쯤부터이며 今日의 施設은 如何한가를 實見的으로 大略을 述하고저한다。

明治末年각가히 되여서 日本內地人醫師의 손으로 炭疽病患者에對한 報告에 若干獸疫을取扱한것이 一三잇는듯하다。그러나 獸醫學者의 손으로 大大的으로 調査되기는 明治三十八年에 當時 一流獸醫學者인 時重博士에 依하야 行해진것이 嚆矢라고하겟다。當時 日本政府는 朝鮮으로부터 年年 大量的으로 輸入되는 朝鮮牛에따라 輸入되는 牛疫으로 因하야 크게苦痛을밧고 잇섯다。그럼으로 其根本對策을 講究하기爲하야 時重博士로하여금 朝鮮의 獸疫을 調査케하엿던것이다。氏는 四月十九日에東京을 發하야 四十餘日間朝鮮各地를 實地踏査하고 七月十六日에 歸渡하엿다한다。氏가 踏査한 地方은 實로廣汎하야 朝鮮各地無慮四十餘處에 亘하엿스며 그 決果가『韓國牛疫其他 獸疫에關한 事項調査復命書』로 發告되엿다。이報告書에 依하야 今日의 釜山獸疫血淸製造所의 前身을 韓國으로 하여금 設立케하엿스며 日本內地로輸入되는家畜에對한 諸般法規도 製定되게된것이다。其後今日에 至하기까지 朝鮮의獸醫學은 着着進步를하여왓다。더욱히 釜山獸疫血淸製造所의 業績이 크다고 아니할수업다。그러나 아즉도 朝鮮의獸醫學界는 微微하다。거이 未開地라고할수잇다。今年에 이르러 느지나마 水原高農에獸醫科가 新設되엿다고하니 매우慶賀할바이지만 이外에 地方數三農業學校에 獸醫科가잇고 官廳獸醫技術官이잇슬뿐이다。이러한機關의 힘으로 果然朝鮮獸醫學界가 얼마나한程度로 開拓될는지實로 閑散한 感을 禁치못하겟다。朝鮮의 畜産業을爲하야 社會衛生을爲하야 더나가서는 農村經濟一般을 爲하야 하루밧비 獸醫學機關이完備되기를希望하는바이다。

처음作待와는 어긋나서 結局에이러한漫筆的雜文을써버리고말엇다 그러나 애초부터 무슨專門的知識을 披瀝할생각이 잇던것이 아니고 다만生產技術의 一部門으로서의 獸醫學의槪說을 우리農村社會에 보내고저 붓을들엇든것이 이꼴이되여버렷다 讀者諸賢은 길이 諒解를 주시기를바라며이글이 秋毫만치라도 參考가되엿으면 滿足하겟다 (了)

懷鄕雜感
② 張赫宙

그小說이란『風林』에 실린 安東洙氏의『遺産』과李東珪氏의『神經衰弱』이고, 이두短篇이다 文學으로볼때는 만흔缺點을 指摘할수도 잇스나 지금 이글의 目的이 두短篇으로하여금『愛鄕』을 느낀것과 그愛鄕이 어떤性質의것인가를 讀者와함께 생각하려고하는것이기때문에 그것은 論하지아니한다。

『遺産』은『할아버님』을 中心으로 構成한小說이다。『할아버님』은 一年에 두세번밧게는 만나러 오지 아니하는 손자를 상대해서 여러가지를 생각한다 저러케 훌륭하게 차란 손자가 왜 돈버리도 못하고 잡지니 小說이니 하고 서울에만 가잇스며 모처럼 단일러왓스니 하로쯤 내겨레 안저서 말벗이라두 되어주지 안나 하고 나종에는 역정을 내신다。그러나 그도 얼굴에 나타내지 못하고 마누라에게 푼돈을 달라고졸른다。그의 세째 마누라는 밥것으로 젊은 노름꾼을 집에 부처두고 개평을 어더 생활을 해나가니 그도 노름이 시나 어쩌수 업서 참는다。손자가 떠나려는 암날『할아버님』은 자기의 先親이 남긴 財産과 自己가 모아보래인 財産을 아들이 다 업새고 죽엇스니 나를 원망치말라 남은것이라고는 殘書엣千卷뿐이니하고 冊을 遺産으로 손자를 주고 落淚한다。이것이 이小說의 槪要이다。

나는 그『할아버님』이 어둡고 낫고 음침한 방에 웬종일을 쓸쓸하게 지나며 무료를 못이기어하는양을 머리에 그리고 그老人이 젊엇슬 時節의 (비록 李朝末葉의 暗黑政治에 눌렷다고는하나)明朗한 生活을 생각코 老人의 陰鬱한 生活이 가슴을 찔릿다。

『神經衰弱』은『내』가 아버지의 꾸중이 듯기실혀서 아무 할일도 업스면서 거리에서 거리로 방황한다。나오다 말다하는 잡지사에서 잡지사로 돌아다니나 잡지사에 모아드는 친구들도 모두 그냥 한시라도 할일이 업고 마음을 올돈이니 소설이나 쓰고 시를 지어서 회푸리를 하려고한다。그러케해서 나오는 作品이 文壇上 可否는 莫論하고 그憂鬱한 靑年들이 제마음을 헐어노흔곳도『글』뿐이다。그러나 그『글』도 마음대로 쓰고 발표할수도 업스니『화』는 더한칭날뿐이다。『나』는 밤에 집에 돌아가서도 잠까지 일우지 못한다。병원에가서 신경쇠약이라고 선언을 밧는다 그러나『나』는『내병은 신경쇠약이다 그러나 나뿐이 아니겟지?』하고 중얼거린다。이것이 이小說의 內容이다。

나는 主人公『내』가 종일 바방놀아다니다가 밤에 안해 엽페서 잠을 이루지못하는곳을 읽을때 한때의 나自身의 그런 生活을 回想하엿거니와 이 짧은 梗槪만으로도 讀者는 이 小說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憂鬱한 生活을 持續하는가? 또 하지아니하면 안되는가? 하는것을 알줄 안다。

따라서 우리는 이代表들이 그런 憂鬱한 描寫를하지아니하면 아니될 生活속에서 그들自身의 小說의 人物이 곳 그自身의 生活일것을 생각할때 우리의 憂鬱은 더한칭 어두워짐을안다。

이 小說과 가티 憂鬱한時期가 一九二五六年頃에 내게 잇섯다。나는 해가뜨고 해가 질때까지가 말할수업시 지루하고 미웟다。정거장에가 명하니 오고가고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지난일도잇고 바둑이나 장기로 날을 보내곤 울 해매고 화푸리집에서 난봉질을 하면서『화푸리』를하든일도 잇섯다。

그때의 우리의 生活과 七年後에 나타난 이小說의人物의生活이 똑 가트니 그동안 우리는 잠자고 잇섯든가?

新刊紹介

▲調査月報 三月號(內容) 朝鮮に於ける(?)生産費の研究 朝鮮の家內工業統計 畜産物產額調 (?)收高 (?)收高等 其他 發行所 朝鮮總督府 販賣所 京城府蓬萊町三丁目六二 朝鮮印刷株式會社 振替京城四〇番

▲時中 四月號 發行所 京城府三淸町山二番ノ五 時中會振替京城二四五〇一 定價一部金五錢

▲少年 五月號(內容)科學大講話 童謠作曲 訓話 童謠 少年園 童話劇本 그림童話 兒童劇 滑稽 少年娛樂室 長篇童話 長篇小說 愛讀者募集 수무시귀기 大懸賞等 其他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六番 定價十錢 送料一錢

▲女性 五月號(內容)五月女人의 解剖圖特輯 一 草(女性讀本) 玄濟明氏家庭訪問記、男女對抗座談會特輯 十三道女性巡禮記(平安南道篇)在京各國領事夫人訪問記特輯 結婚과 遺傳 隨筆實話五月創作=코스모쓰피는庭園 外三篇、等其他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六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絶好の御仕入期……
古き歴史と堅牢な品
青年團服
作業服
ズボン
製造卸商
カタログ進呈
合名會社 荒木商店
名古屋市東區宮町三丁目
電話東④二三〇四 七八八六番 振替名古屋二五〇六 三二四〇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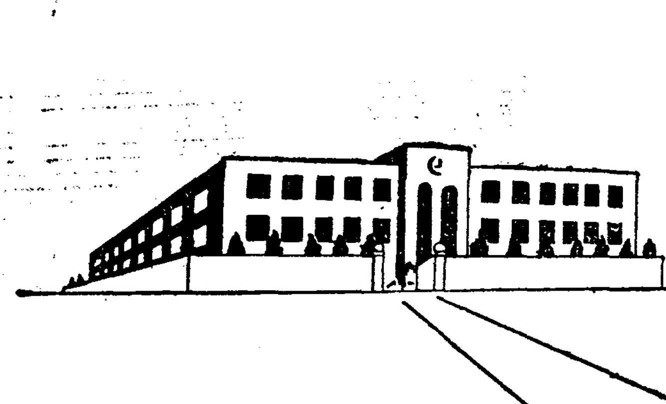
多產鷄
理想的放飼管理種鷄より生産せる強健無比多産優良初生雛提供
養鷄時報無代進呈
名古屋市中區廣路町三七
服部養鷄園

優良国産 経済第一
近藤の自轉車
断然良品 壓倒的廉売
TK
カタログ無代進呈
自轉車 フレーム 部分品 タイヤ 卸
合名會社 近藤鉄商會

絶好の御仕入期……
古き歴史と堅牢な品
青年團服
作業服
ズボン
製造卸商
カタログ進呈
合名會社 荒木商店
名古屋市東區宮町三丁目
電話東④二三〇四 七八八六番 振替名古屋二五〇六 三二四〇八番

多產鷄
理想的放飼管理種鷄より生産せる強健無比多産優良初生雛提供
養鷄時報無代進呈
名古屋市中區廣路町三七
服部養鷄園

和洋服大型覆器
(完全折疊式吊掛兩用自動開閉裝置)
和洋服大型覆器
特價 九圓八十錢 (洋服六ケ付) (送料十二圓)
小包送料 一圓〇五錢
寸法 間口二尺七寸 奥行一尺 七寸五分
此の大型覆器は六着分以上澤山の衣服を收納出來カーテンは厚地綿絹交織の優美的なものです
名古屋市中區老松町
伊藤利商店



新入學兒의
弱体補強
造血아웃호루몬
各國帝國大學病院의指定常備藥
補血強壯
ブルトーゼ
부루도ー제

環境의變化에直面한 新入學兒童은肉體的으로나精神的으로도 多大한影響을밧게되는대 特히素質的으로體力이不足한虛弱兒童에잇서서는 入學後數個月이되면 所謂『學校貧血』이라고하는狀態를만드러 顏色蒼白、頭痛、不眠、食慾不振、動作不活潑의 身體的變調를招來하는일이 往往잇다、이것은 榮養及運動의失調가主要原因이되여잇슴인즉適當한處置를 해야한다

要컨대 부루도ー제와가튼獨自의 造血榮養作用을가젓고 또한 이種類의疾病을 豫防治療하며 또한 그連續的服用에依하야 體質을改善하는 製劑를 常用하는것이 가장 機宜하고 適當한處置이다

補血強壯增進劑	부루도ー제	小瓶 二·〇〇	大瓶 三·二〇
神經性疾患治療劑	아루젠부루도ー제	小瓶 二·二〇	大瓶 三·七〇
健胃補血強壯劑	기나부루도ー제	小瓶 二·二〇	大瓶 三·七〇
腺病質患治療劑	요ー도부루도ー제	小瓶 二·二〇	大瓶 三·七〇
呼吸器系疾患治療劑	구아야고ー루부루도ー제	小瓶 二·六〇	大瓶 四·二〇
安產強兒保健劑	네오부루도ー제	一八〇錠 一·〇〇	三六〇錠 一·八〇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市日本橋區本町

健康法の指針「活動の源泉」無代進呈

B 1238

赤ちゃんの病氣と手當早見表

消化不良

…綠便・便粘・顆粒便……

消化不良으로 젓을기우고綠便粘便、顆粒便等을 누게되는대지금까지는 어른의胃腸病과가티 반듯이젓먹이는것을、制止하엿섯스나 이것은 도리혀乳兒를 虛弱하게하며 病을더낫부게하는 일이잇슴을알수잇게되엿다

이제는授乳하는時間을 規則的으로하는同時에 『錠劑わかもと』를물에풀어서 멕이는것이危險이업고가장効果잇는療法이라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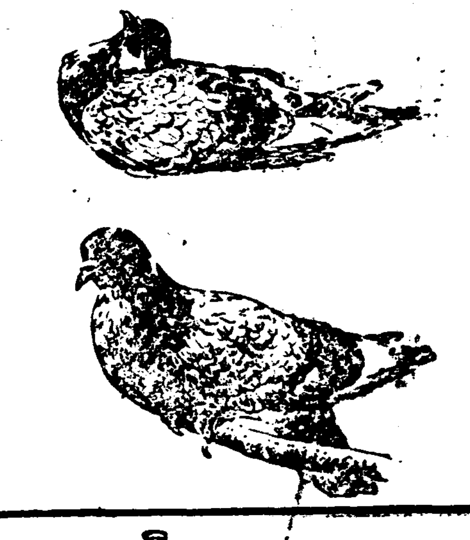
乳兒脚氣

…젓이中毒된다

生後二個月부터 半年동안에 만흔病으로 綠便、顆粒便을 누고 또는 嘔吐、便秘를하는일도잇다。母體의脚氣(비타민B缺乏症)에서 생기는젓의中毒症狀이라고한다。그러나

젓을멕이면서도 비타민B複合體를가장만히含有한『錠劑わかもと』를 어머니도먹고乳兒에게도멕이는것이確實한療法이다。

人工榮養兒



營死의鳩비둘기 ● 『錠劑わかもと』를먹이고回復한비둘기

…젓이不足한 어린애……

牛乳나 밀크로 길러내는乳兒의 消化不良은 母乳로길러낸兒孩와는 훨신달라大端히危險하다。生後滿一個年內에죽는어린애는 거지반이이原因이라고한다。

이런때에는乳母를求하야다가 젓을멕이여기르게하는것도조흐나 그러케라도할수업스면牛乳나밀크를멕이는데 注意하고반듯이『錠劑わかもと』를 갈아서석거멕이도록하다 그러케하면效力이잇다

虛弱・發育不良

…體重이안느러

弱한乳兒는榮養을 吸收하는힘이薄弱함으로 밤낫 胃腸을해치고 感氣에잘걸니며 發育狀態가퍽낫부고 體重이 느는것도 非常히緩慢하다

이러한 乳兒에게는『錠劑わかもと』를 먹으면은 獨特한細胞原形質賦活作用으로 榮養을吸收하는 器官을 强하게하는고로 發育狀態가 一變하야 體重이增加를 活潑하게된다。

小兒肺炎

…抵抗力이 生死의分岐點

처음에는 感氣인줄알어든것이기침이몹시나고 熱이 漸漸놉하지며 呼吸이괴로워짐으로 手當으로는 室內에 湯氣를너어서 空氣를 차지안케하며手足에는 ユタンポ를 밧치고咽喉와가슴에 濕布를하여준다

抵抗力이弱함이 第一危險하니可及的乳母를멕이고『錠劑わかもと』를멕이면衰弱을막고治癒를速하게하는効力이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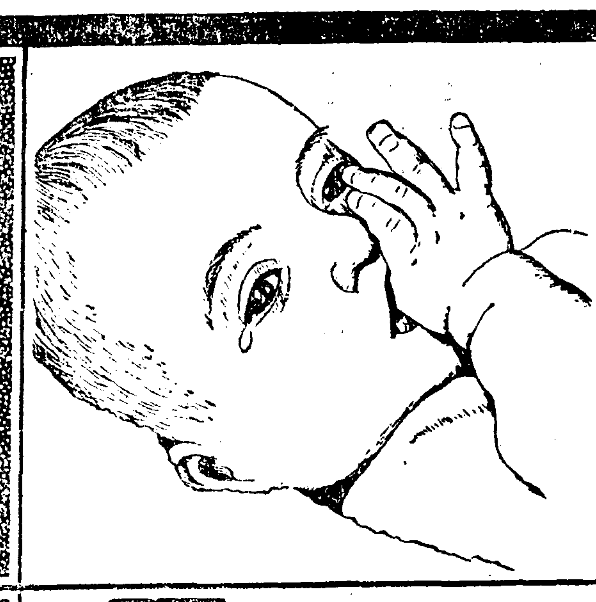
小兒結核

…瘦瘠하고 …寢汗이난다

파리해저서 顏色이낫부고、盜汗을 흘리는것은結核初期의兆候이다。幼兒의 結核은어른과달나、頸部、肺門部의 淋巴腺腫脹이되는일이만타 豫防은最良의 治療를함이니 平素부터新鮮한空氣와 充分한 榮養을附與함이第一이다

特히榮養不足을補助하고 病菌에 對抗하는抵抗力을强하게함에는『錠劑わかもと』를 常用식히는것이第一安全하다。

神經過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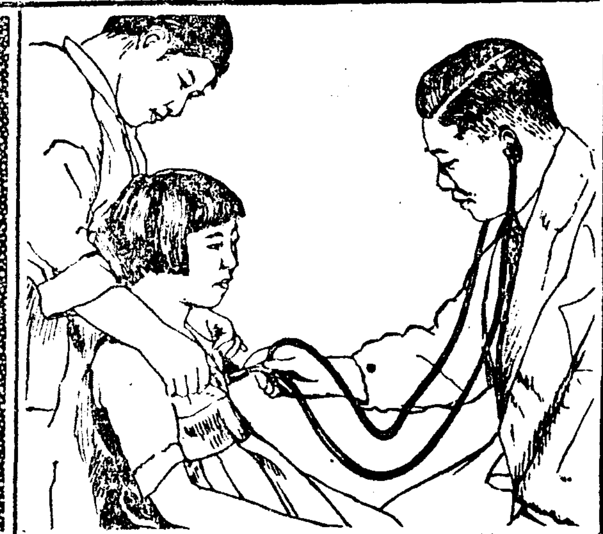


…자다가울고 肝氣가甚해……

肝氣가甚하고 잠을못자며밤에작고울고조곰만일에도깜작깜작놀래는 神經過敏이된乳兒는흔히弱한 母體에서난 榮養狀態가 不良한것이原因이되여잇다

될수잇는대로乳兒를刺戟시키는것가튼일은避하고 母體를튼튼하게하야 質이조흔母乳를멕이는同時에『錠劑わかもと』를멕이면서榮養狀態를改善시키여줌이緊要하다

自家中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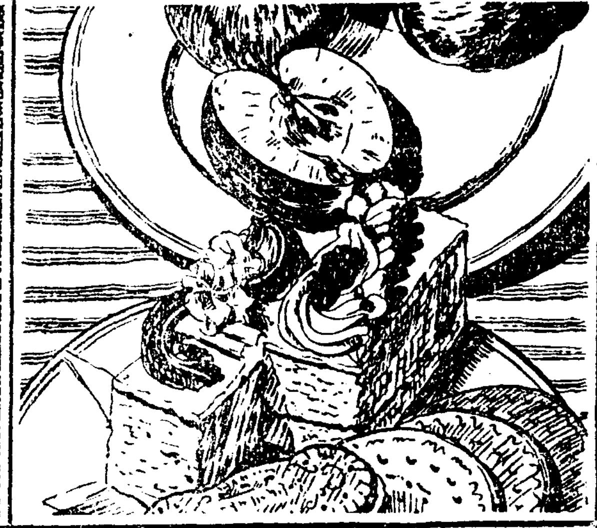


…痙攣 發熱을해……

乳兒가 별안간高熱을發하며바람이나는것은 大抵自家中毒에서 생기는것이다 이것은便秘로 腸內에 異常醱酵를惹起하고毒素가 血液中에吸收되는때문이니

應急手當으로는 灌腸을식혀서腸內에잇는것을 排泄식히는것이다。그러나 灌腸은버릇이되면 안되니가 平素에『錠劑わかもと』를먹여서便通을規則的으로 하게해야한다

急性胃腸カタ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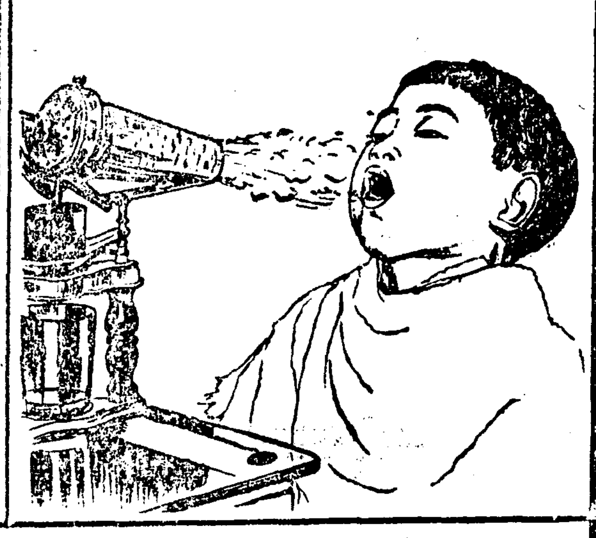


…食傷・水傷……

밥에 滯하고 물에滯하야 泄瀉를하는때는 이것을 멈추게하여서는안된다 얼는 下劑를써서뱃속에것을 排泄하게하고나서『錠劑わかもと』를 丸藥그대로멕여둔다

그러케하면 獨特한細胞原形質賦活作用으로腸壁의損傷을 回復시키며 貴重한榮養素를補給하야衰弱을막고 泄瀉의原因이되는 有害物을分解排除하야 속히낫게한다

はしか百日咳



…餘病이겁난다

痲疹 百日咳는幼兒時代에는반듯이한번은 걸리는것이라고하는만큼 흔한 流行性病이다痲疹은 發熱이되여도덥게하고차게하지말것이며 百日咳는溫暖한곳으로 轉地식히는것이第一조타고한다

모두가餘病을일으킴가무엇보다 危險하니『錠劑わかもと』와가튼 綜合榮養劑를먹여서榮養을充分하게하고 衰弱을防止하지안으면안된다。

教育掛圖寄贈

教育資料會編纂의優秀한教育掛圖를、全國小學校에寄贈을한다。

『錠劑わかもと』買上하시는이에게 一瓶마다添付한『掛圖寄贈引換券』을 한장도버리지말고小學校로보내주시오、이割引券을모아서 左記로보내는 小學校에規定枚數에應하야 優秀한教育掛圖를寄贈한다。

詳細한規定書는申込하는小學校에送呈한다

東京芝公園十一號地
教育資料會

胃腸榮養 錠劑 わかもと
와 가 모 도

製法專賣特許

WAKAMOTO

藥價低廉

錠劑三百錠 一圓六十錢・一千錠 五圓

三百錠入은大人에 廿五日分・十歲前後兒童에는約四十日分
五歲前後兒는十五日分・三歲前後는六十日分에該當

東京市芝公園 株式會社 わかもと本舖 榮養と育兒の會
振替東京一七〇〇〇番・電話芝代表一一七五番

新義州의宿年懸案인 工業用水問題解決

"鍾紡"서七拾五萬圓을던저 今年內로工事를完成할豫定

【新義州】 공업용수(工業用水)문제에관한 중요안건을 가지고일본내지에출장하야 왕자(王子)제지본사와 종방(鍾紡)본사와교섭중에잇든 평북미좌(美座)지사는 십팔일아츰노조미로 귀임하얏는데 미좌지사의말을드르면다음과갓다

즉 왕자제지와의 교섭은결렬되엇스나 종방에서는 수도시설비(水道施設費)로오십만오원을기부하고 이외에다시이십만원 합계칠십오만원을인수하는 동시 일본수도계의권위자인종방수도과장 정상정치랑(井上政治郞)씨가 공업용 대수도시설에대하야 설계로부터 준공까지 드촉탁(囑託)으로서이공사의전체를 맛기로되엿슴으로 속히도회(渡會)를 소집하야 고종방(鐘紡)사장과 정식수속을 하는동시에 대림조(大林組)와 공사청부계약을체결한후 착공할예정이다 공사비총액은 일백사십만원으로 일일에 십만립방미(立方米)의공원수를 끌것인데 공사완성기는 금년십일월말로 완성되는날에는 평북백년대계의 유일한 재산이될것이라한다

收賄한巡査等六名에 各六個月役求刑

十六日晋州法院에서

【晋州】 지난십륙일오전열한시부터 진주법원지청(晋州法院支廳)법정에서는 증회(贈賄) 수회(收賄)공판이 오(吳)판사주심하에 개정되엿는데 즉 정피고는

◀門昆鍾(三六) 泗川郡昆明面新興里四○八番地◀李校生(三六)泗川郡新興面正谷里◀朴三?(三七)泗川郡新興面金城里◀姜三?(三?)泗川郡新興面正谷里◀金?圭(三?)泗川郡新興面正谷里◀?点?(?)元巡査 ?川郡一班城面食林里

등륙명으로 그범죄사실로 보건대전긔재판관 리판생 박상증 강삼석은 작년십이월식구, 이십삼일에 강의집에서 도박을하엿든바 이를탐문한 소관원전주재소(院川駐在所)에서는 이들을잡으려 함으로 모다 도주하여단기다가 전기 상인은 공모하야평소부터 전기주재소순사 지점조와 친교 잇는정용규를 사이에너허서 금년일월십이일에 전기지와 가티진주읍(晋州)료리옥 경성관(京城館)기라 유곽(遊廓)등지에서 함께 륙십이원십칠전의향응(饗應)을하엿다 는것인데 도박사건은 사천서(泗川署)에서 즉결로 각각삼원식벌금에 처하엿거니와 사실심리를 마친후 립회최(崔)검사로부터 지점조는 수회(收賄)죄로 기타오명은 증회(贈賄)죄로 증거충분하다하야 각각징역륙개월 지점조는 그밧게 추증금(追徵)을 십이원십전을 구형하고폐정하엿는데 판결은오는 이십일이라한다

新裝될泪城名物

大同門

工費四萬五千圓 三個年繼續事業

五百年風霜의記憶도쓰라려라

【平壤】 려사의도시 평양시내에는 유서기픈 루문이각처에 산재해잇스나 춘풍추우 천여년동안 련광정(鍊光亭) 대동문 (大同門)부벽루(浮碧樓)을밀대 (乙密臺)등려사적 거물은 휴패가심하여 깟따하면 쓰러저자최를찻기 곤난한 금박하형편에 잇기때문에 뜻잇는사람들이 애석히여기어오든중 련광정은 그동안수리를깃마처서 다시금씩씩한 자태를나타내게되엿고 전금문(轉錦門)도 넘어저든것을 다시세워든바 이번에는 공사비 사만오천원을드려 삼개년계속사업으로대동문을 수리하기로되여 수일전부터 해체작업(解體作業)에착수햇는데 삼년후에는 만신창이가되대동문도다시금 완전한 문으로서 녯날의면목을 다시나타내게되엿다 그리고 금년도에는위선일만원으로 착공하게되엿고지휘는 삼산(杉山)총독부촉탁이하기로되엿다한다

(修理하는大同門)

罪의母·棄兒코懺悔

食母노릇하다가貞操빼기고 不意의씨나서버리다鐵窓에

【元山】 생활난으로 나흔지한달도못된 젓먹이를 눈물을먹으면서 남의집천하에 버렷다가붓자펴온 애욕의향연(饗宴)에 제물된 죄의어머니가잇다 그는 본적을 고원군하발면대수리(高原郡下鉢面大水谷里)에두고 업을차저 헤매든 조차아(趙次娥)(二?)로서 약륙년전에 남편을 사별하고 생활난으로 혼자살수업서 각지로 전전하다가 작년이월하순경 원산식료품시장 전무취체역 덕중십위(德中十衛)방에 식모로 고용되여잇스면서 전후사오회에빼처서 전기 덕중의강요에의하야 불의의관계를 계속하여온것이수난의아들을 임신하엿섯는데 조차아는 덕중일가가 동경(東京)으로 이사간까닭에 작년부터 다시 시내모변호사의집에서 식모노릇을 하고잇섯다 그러나 날이 몸이무거워갈수록 괴로워저서 식모노릇도 못하게되여 지난사월팔일에 전기집을나와서 시내륙정이십사번지 류모(劉某)의집에 부처살면서 사내애를 분만한것이다 그러나 닥처오는생활난으로 내아들의 귀여운것은 알되 양육할 도리가 업스므로모성애에울면서 갓난애를 버리는죄를지엇든것이라고한다 그리하야 지금경찰서류치장에서 눈물로 자기의과거를 참회하고잇다

蟒龍窟·妙香山 探勝團員募集

古塲支局後援

【古塲】 운산군 고장(雲山郡古場)연주청년회(延州靑年會)에서는 이씨ㅣ즌을차저 본보고장지국후원으로 전세계에서 지하금강이라고 칭하는 동룡굴(蟒龍窟)묘향산(妙香山)등 명승지탐승단을 모집중인데 지방제씨는 기회를 일치말고 다수신입하기를 바란다하며 규정은아래와갓다한다

一、時日 五月十五日 至五月十六日(음四月四日부터六日)

一、申請期限 五月八日 (음三月二十八日)

一、會費 一人當二圓五十錢 (自轉車行)

一、申請場所 朝鮮日報社古場支局

親父를毆打코 다시放火까지

애비게뺨맞고憤끄테

【釜山】 지난십오일오후네시경경남진주군문산면안전리(晋州郡文山面安全里)김수옥(金壽玉)(二三)은 자기친부와 말다툼을한 남어지뺨을 드차래마젓는데 이에분개하고 몰로친부를 라라하야전치약三주일을 요할부상을입힌후 집에다불을 노하다한다 그래서 이웃사람들이 달려와서진화하고자하는것을 폭행을하므로경찰에 고발하아서 방금엄중한취조를밧고잇는데 일반주민들은그의비인간적 행동에비난이놉다고한다

地方人事

◀金??氏 (前扶餘郡外山公立普通學校長) 牙山郡仁州公立普通學校長轉勤人事次本社仁州分局來訪

◀千大根氏(本報扶餘支局顧問)忠淸南道議員候補人事次 本報扶餘支局來訪

◀李寶範氏(扶餘金融組合長)同立候補人事次 本報扶餘支局來訪

◀朴成鎬氏(忠南與産社長)同立候補人事次 扶餘支局來訪

長篇小說 그의自叙傳【116】

長白山人 作 熊超 畫

대학생활(三)

나는 S에 사는 친구 S를방문하엿다。이름은 방문이나 내속 마음은 그를 따라서 유곽에를 가보고싶은것이엇다。그는 시를 쓰고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 방 하나를 빌이가지고 혼자 잇엇다。어떤 치운 겨울날 오후엿다。S는 이불을 두르고 앉어서 화로시불을 들여다보고잇엇다。

『나는 화로에 숯을 들여보고 앉엇는것이 낙일세。그것이 빨가케 타면서 차차차 술어저서 마침내 식은 재가 되고 마는것이 내 생명과 갈다는말일세。』

S는 아르치바셀을 집거서 읽엇다。그는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도 못 가고 집에서 소설과 시만 읽고 잇는 명상적인 칭월한 사람이엇다。

『빨가케 타다가나 술어지면 한이나 없지。한번도 타보지도 못하고 술어지는놈은어찌하나?』

나는 이런 소리를 하엿다。이것은 내진정이엇다。

『자네도 그런 소리를 하나?』

하고 S는 놀랏다。

『왜? 나는 사람 아닌가? 청춘 아닌가? 청춘에도 못 타본 청춘』

이러케 말하고 나는 픽 웃엇다。

『자네는 교육가요 종교가요ㅡ 나는 자네는 그런 생각을 아니하는줄 알앗네』

그는 엄숙하게 나를 바라보앗다。그의얼굴 근육은 아편중독한 사람모양으로 씰룩거렷다。

『부활』첫 허두에 잇지아니한가。세면도되는 도시의 길가에도 흙만 나온다면 봄이 오느니라고。그 심만한 틈에서도 풀이 나느니라고。종교가의 마음은 흙으로 안 되을 아나? 나는 종교가도 못되네마는』

나는 이러케 말하고 한숨을 지엇다。

『아 그래?』

하고 S는 이상한것으로 보앗다는드시 고개를 끄덕끄덕하엿다。

『한 잔 먹으라나?』

S는 이러케 제의하엿다。

『그러세。어디 나가세』

나는 오늘 신문사에서 온돈이십원이 지갑에 잇는것을 믿엇다。오늘 한번진탕치듯의 해탐을 하자는것이다。

S는 날더러 잠깐 기다리라하고 나가더니 한되들이 술한병허구 오징어 두마리를 사들고 들어왓다。그는 주전자에잇던 물을 따라버리고 거기다가 술을 펑펑 부어서 화로에 올려놓고 일변 오징어를 구엇다。찻종으로 술시잔을 삼앗다。

『술밧이 더 좋은게 어데잇나? 떡 취해놓으면 천하가 다 내것이란말일세』

하고 그는 맛나게 술을 마셧다。나도 원체 취할 작정이기때문에 부어주는대로 마셧다。

『나 자네 이런줄 몰랏서。자네는 꼬장꼬장한 샌님으로만알앗네그려。자네같은 도학자선생이 어떠케 소설을 쓰나 그랫단말야 하하』

S는 유쾌한드시 내 손을잡아흔들엇다。실상 나는 주색을 마음대로 하는 친구들속에게는 경이원지를 받는 편이엇다。기독청년회 이사장인나를 자기네 술동무로는 생각지아니햇던것이다。S도 나와 사고인지는오래지마는 역시 나를 경이원지하는 사람이엇다。

『난 오늘 새 친구 하나를얻엇네。날동석이 속에 인간적인 다른 날동석이 하나를 찾앗단말일세』

하고 S는 주흥이 도도해서 내목을 끌어안고 빰을 비비고나중에는 입을 맞후앗다。그리고는 연해,

『참 유쾌해 참 좋은데』

하고 흥분하엿다。

나도 술이 취해갈사록 내 몸을결박하엿던 도덕적 줄을 다글러버리고 S와 같은 자유로운심경을 가진 사람이 되랴고애를 썻다。

『자네 연애해 본 일 잇나?』

S는 이러케 물엇다。술시병에는 술이 좀 남앗으나 인제는 더 먹을 욕심도 없엇다。

『없어。한번도 없어』

하고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엇다。

『자네는?』

하고 이번에는 내가 물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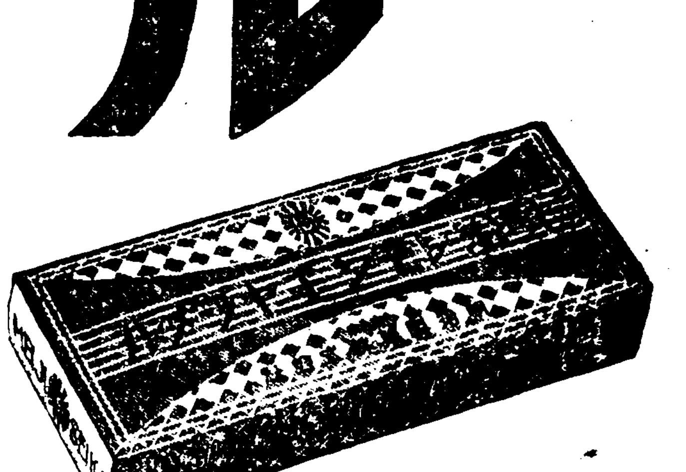
『나? 글세 잇다면 여러번 잇엇고 없다면 한번도 없엇지』

S는 추연히 고개를 숙인다。

新發賣!

明治레몬캬라멜 (明治レモンキャラメ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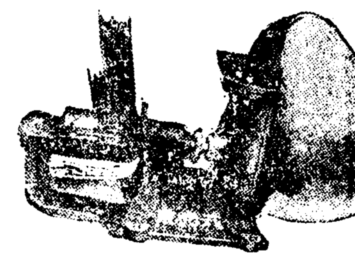
馥郁한레몬香에밀크·빠터ㅡ牛乳等의榮養素를多量으로 包含한美味와滋養의新製品



明治製菓株式會社

氣分도頭髮도산뜻해지는

ランラン洋髮香油



ヒユーガルボンプ多量製造販賣

營業科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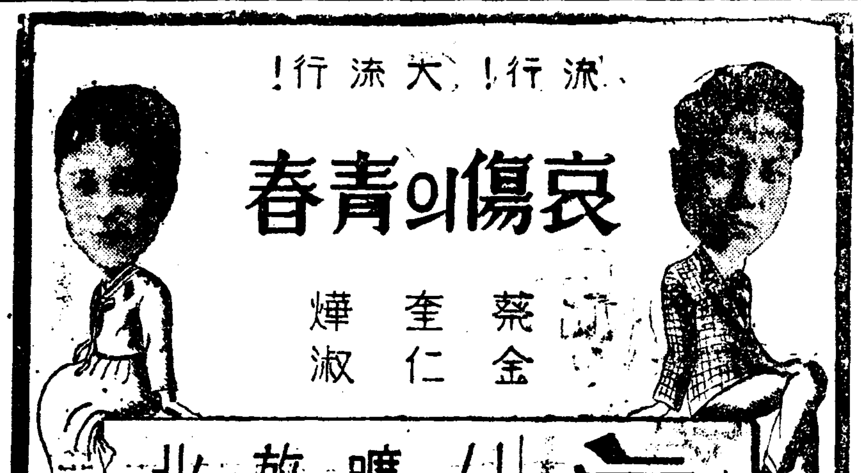
京光式 汲揚機 精米機 發動機 鑛山機 製粉機 ゴムロール機

各種ポンプ 各種ゴムロール 各種ゴムベルト 傳導要品 機械工具 水車鐵物 各種機械修繕 精米工場 玄米工場 設計請負一式 (型錄進呈)

京城靑葉町二丁目一三○番地

京光社營業所

營業所用 電話龍山④一六二番 鐵工所用 電話龍山④九六二番 電略(ケ)又ハ(ケイ) 振替京城一三六一五番



流行! 大流行!

哀傷의靑春 蔡奎燁 金仁淑

哀戀! 悲曲!

흘러간燈台 蔡奎燁

시달닌가슴 蔡奎燁

曠野의달밤 劉鍾燮

放浪哀曲 劉鍾燮

北方消息 金仁淑

Columbia 콜럼비아레코-드

總督認可 生徒募集(規則三錢要)

京城第一自動車學校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 電話本局五三六○

콜럼비아專屬

特別廻演 音丸·伊藤久男

日本第一人氣流行歌手

音丸

伊藤久男

Morinaga CHOCOLATE

百貨店又는有名한菓子店에서入場券사시는분의게森永밀크쪼코레-트五十錢分을드립니다 熱狂的人氣를끌고잇사오니賣切되기前에速히사주십시요

四月 廿一日 廿二日 廿三日

晝夜二回開演 晝 一時부터 夜 七時부터

入場料 一圓均一

푸로그람

京日 朝日 世界發聲ニユース

メトロー超特作日本版總天然色 さくら日本

松竹京都トーキー作品 仁義一すぢ道

主演 本鄕秀雄 小池政江

色彩と歌と 踊りの花吹雪!!

歌謠曲 音丸

流行歌 伊藤久男

舞踊 飯島綾子(藤間勘秀)

伴奏 二階堂健介

4月21.22.23.

御家族連で 明治座

Columbia

明るくて永くもつ 名實共に日本一

日本乾電池

高砂工業株式會社

本社 京阪 電(本)一四九七番

中央無盡會社創立
資本五百萬圓
共濟、興業、共立三社合同
一萬五千株는公募

旣報한바와가티 京城에잇는共濟 興業 共立三無盡會社는合同하기로되야 지난十二日에 三社代表者間에 假調印을하엿는데 知事當局의 認可가 끗난뒤에 朝鮮殖銀其他財界有力者와 前記三社關係者들로서 發起人會를 열고新會社創立에 對한 討議를 할터인데 會社名稱은 中央無盡株式會社이며 公稱資本金은 五百萬圓이고 株數는 十萬株이며 一株金額은 五十圓으로 第一回拂込金은 十二圓五十錢으로할터인데 十萬株가운데서 八萬五千株는 從來의 前記三社와財界有力者들이 半分式으로 優先引受하고 一萬五千株는 一般에게 公募하게될터이라한다 그리고 加入者契約者 從業員에게도 株를가지도록할 方針이라한다 初代社長은 未定이고 官廳에서 나려보내지안는데서 내게될터인데 아마 共濟의 池田氏가 推薦되게되리라한다 三社의 從業員은 全部 新設會社에서 採用하기로될터인데 다만 從來各社의代表者가 保證捺印하는條件이되서 採用하기로 되엿스므로 老朽者와 一部 曖昧한 事實이 잇는 사람은 結局 淘汰되게될 모양이라한다 本店은 京城에두고 京城 仁川 開城 水原 春川 鐵原 等地에 두게될터이라한다

佐伯內務部長談

本道管內에는 無盡會社가 元來 六會社가 잇섯섯는데 數年以來 朝鮮經濟界의 趨勢와 無盡業使命에 鑑하야 鞏固를 圖謀할必要가 잇슴을 痛感한바 … [illegible]

最高公定價肉迫
期米市勢續騰
高物價의大勢로投機眞不絶
昭和三年以來新高價

昨今의 米淸算市勢는 一見伸惱商狀을 보이면서도 正米事情과 諸物價昂騰에依한 米先高豫想의 思惑買는不絶하야 伸惱後에는 新價를示現하고 少押後는 更伸하는 光景으로 今朝에는 大阪期米先限은 三十五圓臺를 突破하야 三十五圓〇七錢 東京先限도 三十五圓三十六錢을보여 모다最高公定價格에 肉迫하게되엿스며 仁川은 內外關係도잇서銳의 需給도 그다지 圓滑치못할 모양이므로 漸次作付期、天災期에 들어서는 同時에 米價의動向은 注目을 要하게되엿다 … 三十三圓三十三錢을보여 高値로서 昭和三年以來의 高價이다

國防上米穀問題
如何한事態에라도充足하도록
必要한施設實現期圖

陸軍省新聞班週報

日本內地、朝鮮、臺灣을通하야 顯著히 增加하야 平時需要數量으로서는 不足을 感치안코 單只、價格問題가 남어잇슬뿐이다 그러나 凶作과 戰時를 豫想할때는 兵食으로서의 集團的使用 設備量의 備蓄等에 依한 需要增加外 戰時勞力의 減少 資本의 轉用에 依하야 生產力 減少도 未免한다 그때문에 今日의 生產量으로서 恒常 滿足하다고할수업다 歐洲大戰의 例에 依하면 參戰列强의 農產物 減收는 二割乃至四割에나 及한다 그러므로 平時는 供給過剩이라도 生產制限 換言하면 減反等은 極力避하고 貯藏、新規用途의 開拓 그他의 調節方法을 講究할것이다

最近 陸軍省新聞班週報에 國防上으로본 米穀問題가 詳述되엇는바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갓다

最近의 米生產은 … [illegible]

供給의調節問題

國防上見地에서 貯藏量을 考察하면 戰時의 莫大한 需要를 充分할수잇는 … [illegible]

消費의彈力性!

需給을 圓滑케하기爲하야 消費의 彈力性을 가지게한다 卽 過剩時는 主食以外 特히 工業用 利用에 依하야 消化量을 圖하고 또 不足한때는 米의使用制限 米의 代用으로 麥 雜穀 甘藷 馬鈴薯等 … [illegible]

鐵需要調整
十九日閣議에서決定

【東京電話同盟】 政府는 最近의 鐵의價格騰貴에 對한 緊急對策으로서 鐵鋼의 輸入稅의 免除及資源調査等에 關하야 不當한 價格을 防止키 爲한 諸措置를 講究하야 왓는데 … 十九日 定例閣議에서 … 具體案을 決定하얏다

◇鐵의需要調整에關한 閣議決定

最近의 鐵價騰貴의 緩和對策으로서 政府는 鐵의 需要量 調整을 必要가 잇스므로서 … [illegible]

農業經營不輕視
統制보다自由競爭
朝鮮의投資一億六七千萬圓
◇……安川東拓總裁談

東拓總裁安川雄之助氏는 十八日午後四時二十三分入京하야 朝鮮호텔에들어갓는데 十九日은 總督、總監、軍司令官等을訪問하고 二十一日까지 滯在할 豫定인바 東拓當面의 問題에 對하야 如左히 말하얏다 … [illegible]

◇今後의事業方針

◇增配其他

◇金融機構의改善

◇東拓法의改正

朝鮮重工業
六月頃創立

朝鮮重工業(資本金三百萬圓)의 新設은 일즉이 西條鐵工所의買收를 內定하고 東拓 三菱重工業 … [illegible]

經濟界消息

◎優良人蔘耕作者表彰式=蔘專賣局에서는 來二十三日 開城出張所에서 昭和十一年의 同局指定地域 優良人蔘耕作者의 表彰式을 擧行키로 決定하얏는데 本年受賞者는 一等一名、二等一名、三等四名、四等五名 計十一名이라고

滿洲經濟視察團
五月上旬出發

朝鮮內貿業家의 滿洲產業經濟視察團은 … 五月上旬에 出發 … [illegible]

寸鐵

○ 京畿道內四無盡中 三社合同은 當局의 發表

○ 近年朝鮮人의 無盡關係者가 加速度로 늘어가는데 …

○ 닥쳐오는大衆의 生活苦는 기막히는노릇

○ 安川東拓總裁 …

株式
大新鐘頭昂騰

今日의市勢(十九日)

前場昂騰 … 後場揉合 …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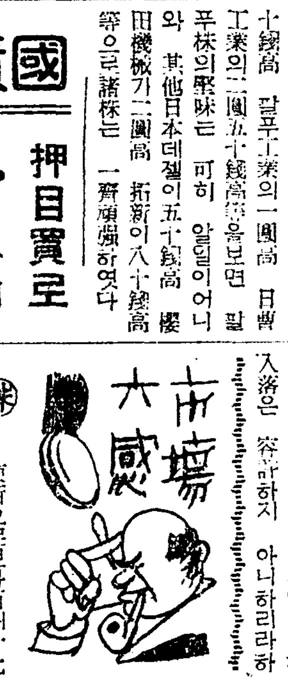
東新十圓回復

下旬高示現?

雜株依然頑强

國債
押目買로少高

◆大阪 … [illegible]



㊑……東新으로보아 … [illegible]

㊊……今朝東京은 三十五圓 … [illegible]

期米
新價後에一息

前場續高 … [illegible]

後場下押 … [illegible]

公定米價肉迫
市勢伸惱底强

正米
淸算高로漸騰

京城續騰 … 仁川强硬 … [illegible]

仁川在庫米增加

朝取期米取組內容

釜山續硬 … 大邱少高 … 群山騰進 … 木浦奔騰 … [illegible]

今日財界 十九日

[illegible]

海外經濟 七日

[illegible]

銀行券 七日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鰯油粕·麥粉

[illegible]

金銀價

[illegible]

正米 京城 / 仁川

[illegible]

雜穀 / 正租

[illegible]

綿絲布 / 本絹交織人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 東京短期 / 大阪短期 /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朝取 / 群山 / 木浦 / 釜山 / 東京 / 大阪 / 日本各地

[illegible]

砂糖 / 生絲 / 人絹 / 棉花 / 綿絲

[illegible]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朝 盆 取 金益證券 京城府黃金町二

期米 玉 仁川米豆 柳來恒取引店

金·銀 德 白金 高價買入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代金引換販賣御應 電話本局 3939 1572 振替京城234